

定慧社

겨울호 · 제20호 불기 2543년



松廣寺 傳統講院
송광사 전통강원

무소유는 고행이 아니다

금강경 첫머리에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와 같이 부처님께서 공양 드실 때가 되어서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탁발을 하되 성안에서 차례로 탁발을 하시고는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다 드신 뒤 바루를 거두고 가사를 벗으셨다...”

만해 스님은 불교유신론에서 말하기를 “대저 중의 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걸생활(丐乞生活)이고 다른 하나는 기취생활(寄取生活)이다. 이 중 개걸생활이란 글줄도 모르고 수완도 없는 자가 남의 집 앞에 이르러 목탁이나 두드려서 구걸함으로써 생을 영위하는 방법을 말함이고, 기취생활이란 글줄이나 알고 머리를 좀 굴릴 줄 아는 자가 기복이나 길흉화복 등 감언이설로 우매한 아녀자를 꺾어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보시 받음으로써 비교적 윤택하게 생을 영위하는 방법을 말함이다.”라 하여 스님들의 행태를 비난하였다.

평생을 무소유로 사셨던 부처님과 오늘날의 우리 모습이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언제부터인가 사찰의 복원불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사찰의 출입을 유료화하면서 우리 스님네들의 씬씀이 또한 세인을 능가하기 시작했으며, 차량과 가전제품 등도 고급을 선호하는 이상한 병폐가 생겼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더 이상 부처님의 덕화만을 믿고 안일하게 속세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 부처님의 출가 정신으로 돌아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다잡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수행자임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소위 말법시대라 해서 비록 지혜는 옛 성인을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행위만큼은 무소유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무소유 정신이란 생존을 위협하는 고행을 하거나 대승의 방편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탁발을 다니고 일종식을 하자는 소리도 아니다. 지금에 있어 무소유를 말하는 것은 부처님 출가 정신에 맞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활윤리관의 회복이자,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행 방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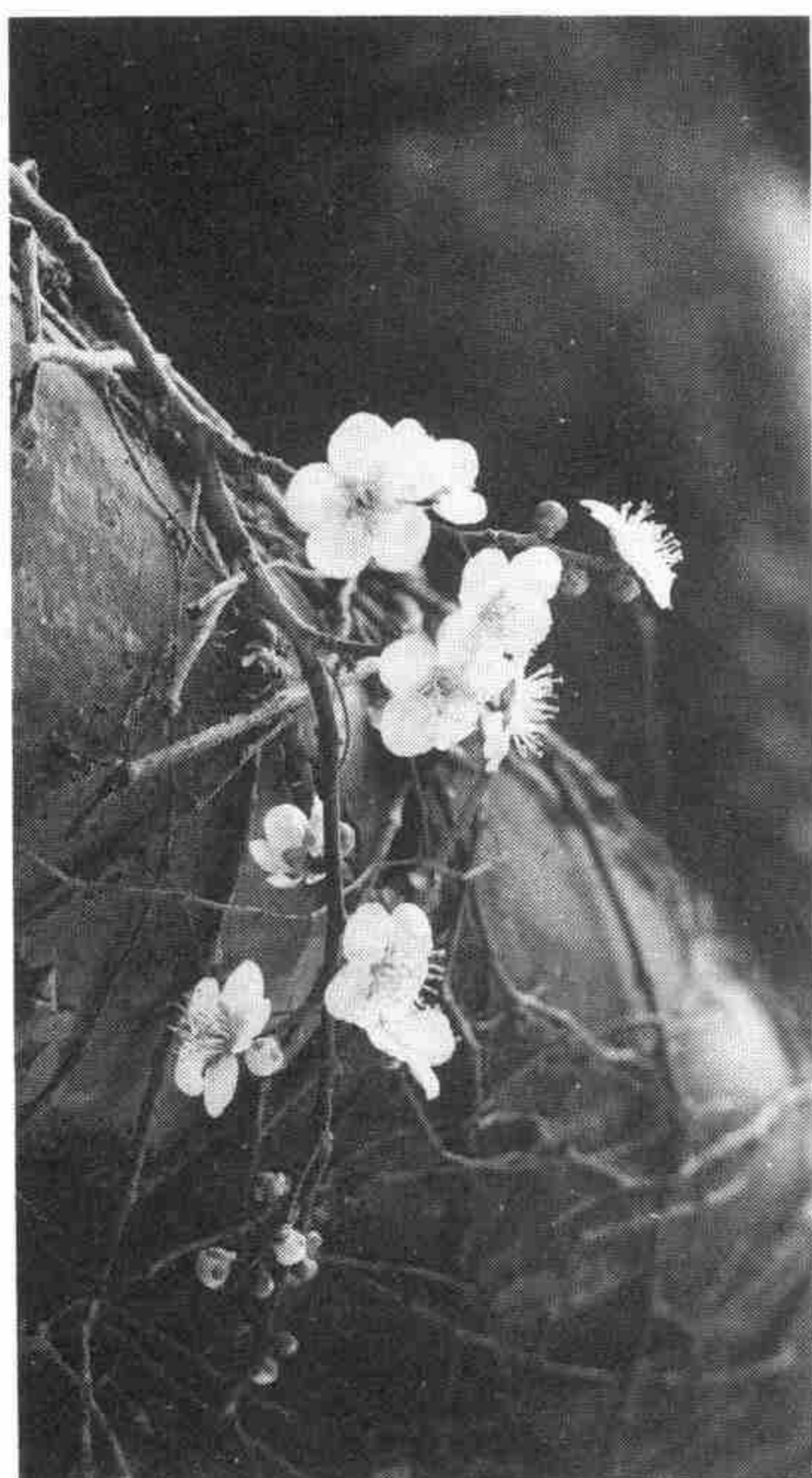
불교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실천하는 현재에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불교인의 삶, 수행인의 삶은 알음알이의 분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서 자신과 주위를 바꾸어 나가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 출가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 오늘날 무소유를 실천하고자 함은, 현실이라는 방편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출가수행의 본질을 살려 현재를 정법의 세계로 바꿔 나가자는 큰 결사일 것이다.

옛 스님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소금을 비축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종단이 흔들릴 정도로 심사숙고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모습의 실체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대승불교라는 말 속에는 중생의 고(苦)의 해결이라는 대명제가 들어 있으며 고의 해결을 위해 많은 방편이 행해지고 있다. 그중에 가장 큰 방편은 수행자의 모습대로 여법하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定慧社

겨울호 · 제20호 불기 2543년



발행처/송광사 강원
발행인/智雲(講主)
편집인/도빈(입승)
편집장/진관
편집/ 도현, 고웅
사진/신범

발행일/2544년 2월 10일
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61)755-5300, 5302

편집 · 인쇄/도서출판 法供養

조계의 물소리 편집부

특별기획, 정혜사 20호를 맞이하여

기묘년을 보내면서 방장스님 · 2

정혜사 20호 발간을 축하하며 진제스님 · 4

不自屈 不自恃 법산스님 · 5

깨어있는 수행자 명성스님 · 6

경전 한구절 비구의 길 편집부 · 7

사진 속 이야기 편집부 · 8

교수논단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지운 · 10

특별기고 출가란 무엇인가 지관 · 14

정혜탐방 축서사 무여스님 편집부 · 16

회광반조 소중한 인연 지암 · 24

손 안대고 나무하는 법 일화 · 25

세한도(歲寒圖) 중현 · 26

살아남은 자들의 몫 석두 · 27

선묘를 만나다 진관 · 28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 30

기획연재 3세조사 청진국사 몽여 편집부 · 34

지대방이야기 축구운력 성경 · 37

나는 POLICE 연성 · 39

작은 아픔 고웅 · 40

사랑하는 그대에게 원교 · 42

바람소리 한자락 동석 범우님 도현 · 43

사랑하는 어머니께 범하 · 44

삶 · 사랑 · 사람들 베풀며 삼시다 정산 · 46

마음으로 다가서기 능원 · 47

난 행복한 스님 보월 · 48

해외교류 대만 불광사 편집부 · 50

중국불교, 송광사 수행체험 편집부 · 53

학인기고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의 특강을 듣고 도정 · 55

영원한 자유인, 페터 노이야르 덕인 · 57

법계의 성품을 보면 응진 · 59

경전소개 한글 원각경을 내면서 편집부 · 60

정혜사 안내

편집후기

謹祝 定慧社 發刊二十拜

輕萬璧以重金言
棄千寶而尊寶偈

庚辰元朝

曹后三日庵主

梵日



輕萬璧以重金言

棄千寶而尊寶偈

만가지 진귀한 옥은 가벼이 여기되 부처님의 말씀은 중하게 여기고,
천개의 보물은 버릴지라도 보배로운 말씀은 존승(尊崇)하여라.

己卯年을 보내면서

曹溪叢林 方丈 梵日 菩成스님



黃兔巧謀勢已窮 하니
白龍雨露救倒懸 이로다.
些少逆境數起嗔 이나
不識天地廣大恩 이로다.

노란 토끼의 교활한 꾀가 이미 그 형세가 끝나니
흰 용의 비와 이슬이 흉년에 고통을 건졌도다.
조그마한 역경에는 자주 성을 내면서
하늘땅의 넓고 큰 은혜는 알지 못하도다.

우리나라 近世 大善知識으로 唯一하게 達摩相을 잘 그리시는 內藏寺 白鶴鳴 禪師께서는 이런 新年頌을 지으셨다.

妄道始終分兩頭 하니
冬經春到似年流 라
試看長天何二相 가
浮生自作夢中遊 로다.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達人分上에는 歷千劫而不古 하고 亘萬世而長今이라 威音王佛이 出世하기 前부터 彌勒佛이 涅槃한 後까지 山高海深하고 日紅月白이지만 凡夫는 어제와 오늘이 아까와 지금이 달라서 숨을 들이쉴 때 죽었다가 내쉴 때 사는 형편이니 一日一夜에 萬生萬死라 苦哉苦哉로다. 今日 大衆은 照顧脚下하야 不濫絲毫하라. 今日來日이 常如半死尸하야 不欲更進一步하니 徒受信施하고 道芽不長이라. 何日에 有出頭期리오. 莫生懈怠하고 勤修道業하야 不失鷄鳴之時하라.

千眼大悲不看透나
隨風和雨過前山 이로다.

관세음 보살이 천수천안으로도 볼 수 없는데
바람을 타고 비에 섞여 앞산을 지나가는구나.

如人이 飲水에 冷暖을 自知니라.

一喝 下座

해운정사 조실 眞際스님

一把柳條收不得
和風塔在玉欄干

버드나무 한가지 잡아도 거들 것 없는데
따사로운 봄바람은 옥난간에 실려있네



출가 수행의 본 뜻은 견성성불(見性成佛)에 있습니다.

출가입산해서 부처님 계설(偈說)을 다 배운 연후에 견성(見性)을 위해 몰록 전력 수행해야 합니다. 강원에서 사교, 대교를 수료하여 모든 교(敎)를 본 연후에는 바른 수행노선을 곧바로 향해 다 함께 성불하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견성하기 위해서는 바른 참구법(參究法)을 배워 지녀서 일상생활에 꾸준히 일념(一念)이 지속되게 정진에 정진을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간화선을 학구참선(學究參禪)하고자 하면 일상생활에 일여(一如)하게 화두를 잡고 의심을 병행하여 화두가 성성(惺惺)하게 간절히 참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몰록 일여삼매(一如三昧)에 들어 고인의 경지에 이르러 살림살이를 짓나니, 이러한 이치는 정(定)과 혜(慧)가 둘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른 정안(正眼)에 들어가야 정정(正定)이 이루어지고, 정정(正定)을 이루어서 끝내 바른 혜가 되니 정혜쌍수(定慧雙修)가 다름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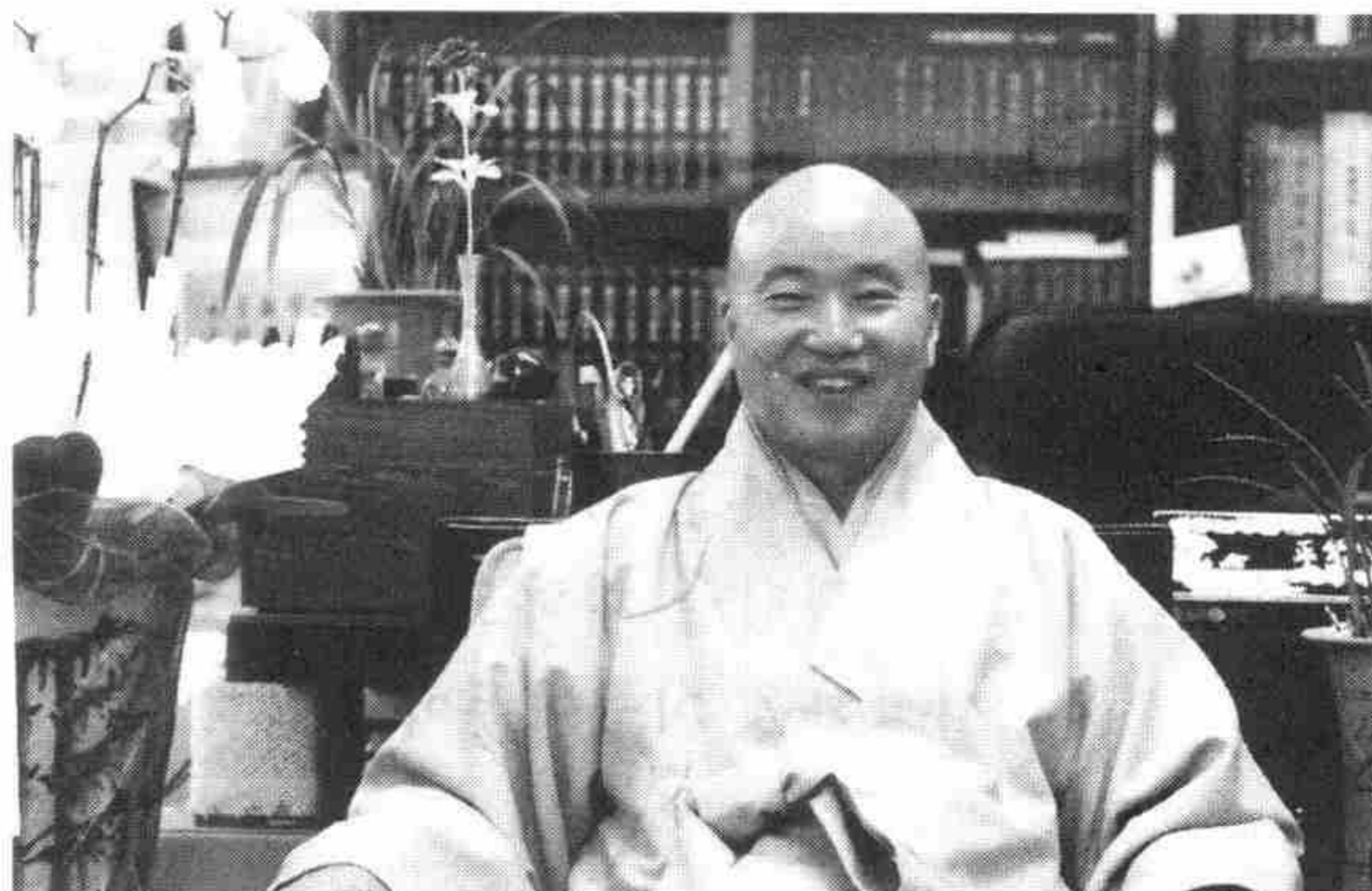
우리 학인 도반 스님들은 부모, 형제, 반연, 시비를 다 접어두고 올곧이 수행정진해서 구경각(究竟覺)을 이뤄 종안(宗眼)을 크게 열어 종풍(宗風)을 드날리고, 빛진 이들에게 은혜를 갚고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천추만대(千秋萬代)에 길이 밝히길 바랄 뿐입니다.

정혜사 20호 발간을 축하하며, 새 천년을 맞이하여 송광사 학인 스님들의 정진이 더욱 일층(一層)하길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정각원 원장 李 法山스님

不自屈
不自恃

스스로 굽히지도 말고,
스스로 기대지도 말라



속담에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다. 설사 굼벵이 같은 무골충이라도 자기 노릇은 한다는 뜻이다. 하물며 인간으로서야 더욱이 출가 수행자로서는 자기 몫이 무엇인지 제대로 챙기고, 제 때에 충분히 자기 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보조(普照)스님은 『定慧結社文』에서 마음 닦는 사람은 ‘不自屈 不自恃’ 하라고 하였다. 스스로 굽히지도 말고, 스스로 기대지도 말라는 뜻이다. 스스로 비굴하게 자기를 낮추어 나약해서도 안되고, 스스로 뽐내는 아만통을 가져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중생의 본심자성이 청정하고 영통하여 본성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 비로소 뽐내고 우쭐했던 자신이 부끄러운 줄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아 지혜를 밝히는 삼학수행(三學修行)도 모두가 자기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 자기 노릇이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정진이다. 임제(臨濟)스님의 ‘隨處作主 立處皆眞’이란 말 또한 ‘어느 곳에 있으나 자기 주인 노릇을 하면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두가 참되게 된다’는 뜻이다.

참된 자기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인들 스스로가 계행을 철저히 지켜야겠다. 어두운 천년 동굴에도 불을 밝히면 밝은 방이 되듯이, 무시겁래(無始劫來)의 무명중생도 부처님의 행인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곧 부처님을 닮아 가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다. 『유교경(遺教經)』에서는 ‘以戒爲師’ 하라고 말씀하셨다. 계(戒)를 수지(受持)한다는 것은 잘 받들어 지킨다는 뜻이다. 즉 자기 노릇이란 곧 자기의 분수인 계(戒)를 잘 수지한다는 의미다.

송광사 학인들이 만드는 『定慧社』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장부심(丈夫心)을 길러 깨달음의 길로 나가게 하는 좋은 방편으로 길이 남기를 바란다.

깨어있는 수행자

雲門僧伽大學長 全 明星스님

“
한 포기의 작은 풀이
이미 얻어진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함을 기울이듯이 ...
”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 처음 마음[初心]과 마지막 마음[畢心]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다르지 않으나, 처음 마음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처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운명이 좌우됩니다.

뜻을 세웠던 초심이 얼마만큼 지속해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 초지일관(初志一貫)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諸佛心内の 衆生이 新新作佛하고 衆生心内の 諸佛이 念念證眞한다.”

는 말과 같이 우리들은 불심에 입각해서 처음 발심한 그 마음으로 나날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순간에 성실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포기의 작은 풀이 이미 얻어진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함을 기울이듯이...

우리 학인들은 문자를 배우기에 앞서 대중생활을 통해 용심(用心)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강원 생활은 출가인의 삶을 시작하고 체험하는,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하심(下心)하며 출가 때 세운 발원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는 투철한 입지발원(立志發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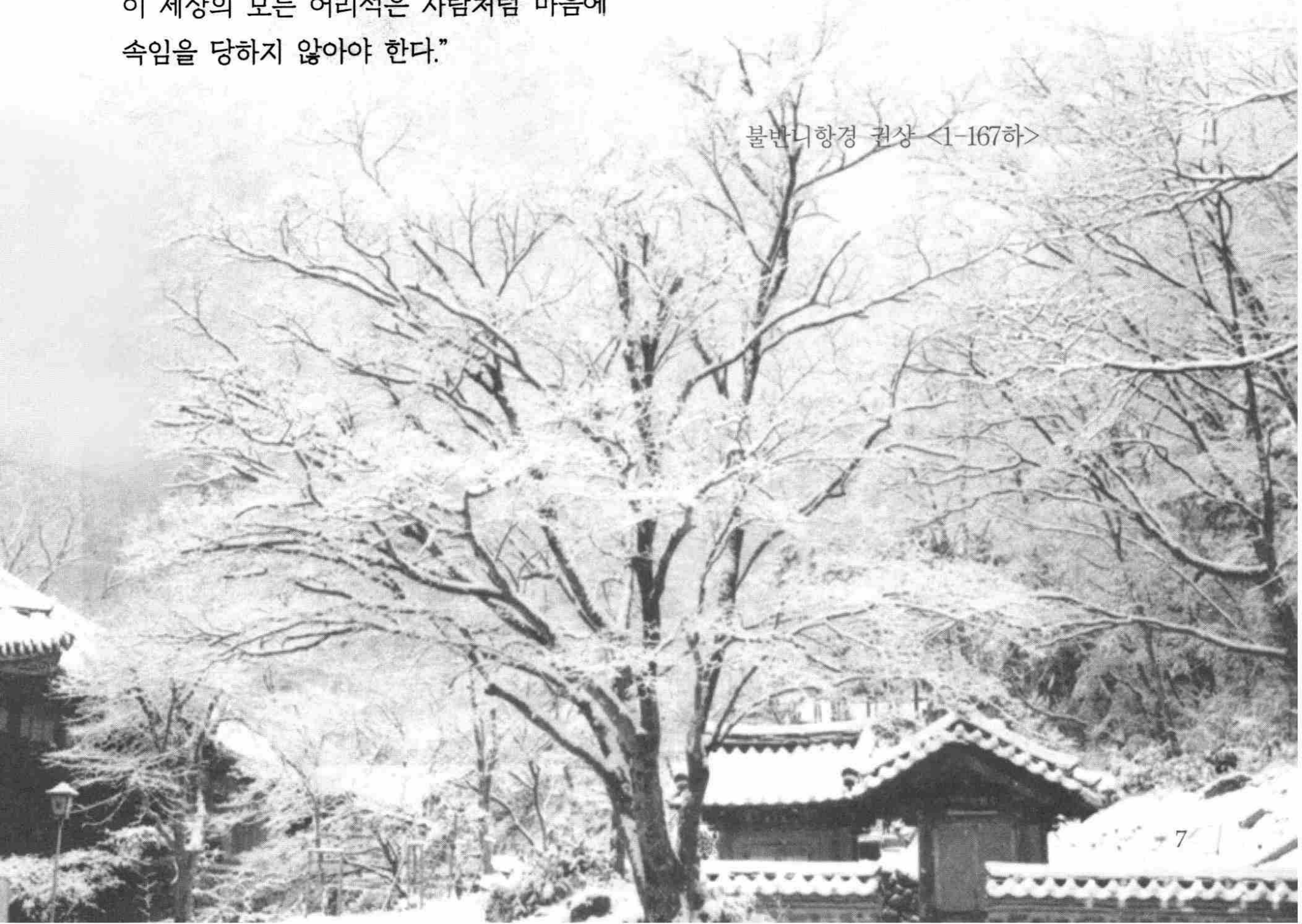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독송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행이 따르지 않는 이론은 생명이 없는 나무와 향기없는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확고 부동한 신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실천하는 책임감있는 구도자가 될 때 불교의 앞날에 서광이 비쳐올 것입니다.

비구의 길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있어 비구들의 스승이 되었나니, 비구들은 내가 말한 계율과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며, 스승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르침을 잘 지켜야 법이 오래 유지될 것이니라. 세상의 복잡한 일에 간섭하지 말고, 법을 항상 생각하며 나쁜 마음과 삿된 마음을 따르지 말라. 삿된 마음이 일어나면 스스로 경계하여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이며, 마음을 늘 단정하게 해야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더라도 비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사람처럼 마음에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불반니항경 권상 <1-167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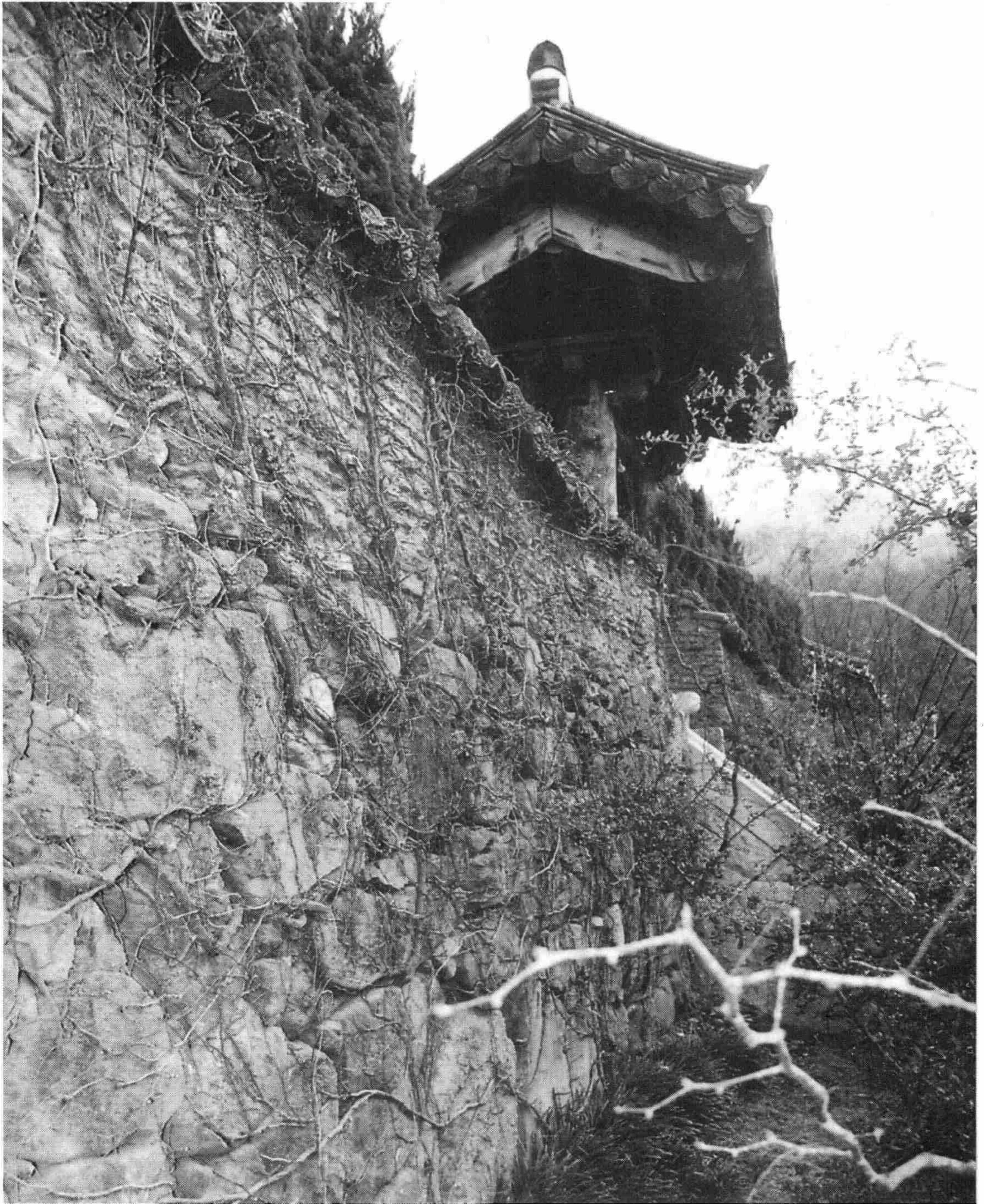


사진 속 이야기



여기는 진제(眞諦)입니다.
담 하나 사이로 세상과 나뉘보지만
계절이 지나가는 바람은
뜰 앞에 머물습니다.

시·사진 / 편집부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지운(智雲) / 松廣寺講院 講主

1.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 대한 自覺
2. 바른 견해
3. 믿음
4. 계율

수행이라고 하면 지레 멀미를 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저 멀리 뜬 구름 잡는 소리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와 반대로 수행을 통해 신비한 능력을 얻어보려는 사람까지 있다. 그러다 보니 眞理[道]란 삶에서 벗어난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기공이니 단학이니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제는 비슷 비슷한 수행체계를 그럴 듯하게 갖추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으니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또는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 또는 명예나 권위, 지위로 생각하여 기공이나 단

학 등의 수련을 하거나 禪修行을 하는 사람들이 줄잡아 백만 명이 상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불교의 체험적 수행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건강이나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명예나 권위를 키우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불교수행이란 삶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깨달음으로 향하는 정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행에는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중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①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 대한 自覺, ② 바른 견해, ③ 믿음, ④ 계율, 이 네 가지가 수행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서도 긴요한 부분이다.

1.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 대한 自覺

수행해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목적이 빛나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지 않다

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이란 괴로움을 제거하는 수행의 바른 수단이며 법칙이다.

수행의 시작은 삶의 괴로움에서부터이다. 삶에 대한 괴로움을 자각 하면서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다. 즉 고에 대한 자각없이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발보리심]이 일어나지 않고 수행이란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행의 출발점은 삶의 괴로움이면서 자연 목적지도 그 괴로움의 해결로 귀착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아야 하는가? 믿기만 하면 모두 해결되는 종교가 있는데 왜 깨쳐야 하며 그러기 위한 수행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물론 수행하려는 첫 마음은 괴로움의 자각이지만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첫출발은 신심(信心)이다.

절대적 타자(他者)인 신(神)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괴로움의 문제

불교수행이란
삶과 죽음이라는
근원적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깨달음으로 향하는
정진(精進)이다.

“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여래가 출현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법체는 상주한다
”

생사고(生死苦)는
연기실상을 깨달아야...

는 인간의 몫이 아니다. 삶이 신
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
연히 삶의 고(苦)와 낙(樂)은 신
의 영역이고 괴로움을 벗어나려
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마음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맹목적 신앙(信仰)은 신
(神)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
난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괴로
워도 신(神)의 처분만을 바라면
서 참고 믿기만 해야 하는 데서
오는 회의와 절망이 생기지 않
을 수 없다. 이러한 맹목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으로는 삶과 죽음
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는 연기
이므로 절대적이라는 것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다. 잡아
함『연기법경(緣起法經)』의 말씀
처럼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여래가
출현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법체
는 상주한다”고 했듯이, 연기의
진리는 고락(苦樂)을 결정하는
신(神)의 개념과는 다르다.

괴로움의 문제는 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깨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창조된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게 하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연
기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번뇌망상을 벗어나고자 진리를
향해 수행할 때, 비로소 연기실
상을 깨닫고 삶과 죽음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연기실상이

하나인 줄을 모르는 데서 생긴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깨달음을 범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말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진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믿음을 타고 진리를 직접 확
인해야만이 그 믿음이 바른 것이
다. 바로 진리를 체득함으로써 괴
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지 믿기
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괴
로움을 자각한 사람들은 밖으로 불
보살의 대비심(大悲心)의 영행[緣,
조건]과 안으로 괴로움을 훈습하여
영향을 주는 진여불성[인(因)]이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인과 연이
화합하게 되면 발보리심이 생긴다.

따라서 삶이 고통이란 자각이 일
어나더라도 진리로써 삶의 괴로움
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바로 발보리
심이며,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發이란 보리를 開發하는 것이며
菩提는 깨달음이며, 마음[心]은 깨
달을 수 있는 바탕이므로 발보리심
은 깨닫으려고 내는 마음이다.

즉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제거하
는 최초의 바른 願이 바로 발보리
심인 것이다.

2. 正見

발보리심이 되었다면 이제 수행
의 먼 여행을 떠나는 마음의 준비
가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마냥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행장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인 것이다.

정견의 정(正)은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적 이론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바른 것이며 어떠한 견해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바른 것이다.

정견의 견(見)이란 바름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것인가.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을 전제로 한 견(見)이다.

괴로움이란 사상이나 학문이 아니다. 사상이나 학문은 과거적인 것이다. 괴로움은 온전한 현실이다.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로움과 사회, 인류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말한다.

그러므로 눈앞에 바로 보이는 현실이므로 볼 견(見)자의 견(見)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괴로움을 전제로 한 견해란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본래부터 괴로움이 없는 열반과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바른 견해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수행이라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수행의 길[수행체계]을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地圖가 없으면 갈 수 없다. 이 때의 지도는 성인의 가르침, 즉 부처님이나 보살, 조사스님의 가르침이다. 즉 佛敎와 祖敎는 수행을 이끄는 길잡이인 지도가 되며, 이 지도를 '바로 보는 것'이 正見이며, 바른 견해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정견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도달할 믿는 마음[信仰과 信心]을 일으키는 것이며 이 믿음을 의지해서 발보리심을 지속 유지시킬 수 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발보리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불보살, 조사스님들의 글을 읽거나 법문을 듣고 발보리심과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정견의 역할이다.

3. 믿음

믿음은 부처님이나 성인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다. 그 가르침을 통해 자기 안에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성품[佛性]을 믿는 신심(信心)과 밖으로는 불보살을 신앙(信仰)하는 믿음이 그것이다.

괴로움을 자각하여 보리심이 발하게 되면 안에 갖추어져 있는 진여불성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인 무명번뇌를 훈습하기 시작하므로, 무명번뇌를 제거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신 부처님, 보살,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며, 안으로 진여불성을 믿고 밖으로 불보살 조사스님들을 신앙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의 믿음은 불보살(佛菩薩)의 가피를 입는 것으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갖가지 장애를 막아 주어 수행의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무명번뇌의 장애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내부에 갖추어진 불성이 있음을 믿고 [信心] 무명번뇌를 관조하는 것이

눈앞의 현실인 괴로움을
바로 볼 줄 아는 견해,
그것이 정견(正見)이다.

믿음이란
내 안의 불성과
밖으로는 불보살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다.

계율은 수행 중 나타나는
마장(魔障)을 막는
방어막이다.

다. 그래야 비로소 무명번뇌를 타파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확신과 동시에 체험이 동반한다. 이 체험은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여 발보리심이 물러나지 않게 한다.

또 믿음은 수행을 시작하는 첫 출발의 마음이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수행하더라도 도중에 의심이 생겨 진척이 없을 뿐 아니라 사견(邪見)이 생겨서 바른 수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들은 정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샷되고 수행의 성취가 있더라도 모두 샷된 것이어서 권위나 상업주의로 이용하게 되어 삶의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애초에 빗나가게 된다. 결국 바르고 위없는 평등한 깨달음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4. 계율

계율은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수행덕목이다. 뿐만 아니라 불지(佛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흔히 계율이란 승가(僧伽)의 규칙정도로만 생각하거나 도리어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승가에서 계율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역시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승가는 영적(靈的) 교류의 장(場)이다. 계율이란 구도자(求道者)가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조성의 역할을 하기도 하여 외부의 장애를 막아주지만 또 한편 수행자 개개인의 마음이 밖으로 치달아가는 장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경계가 있다. 『大乘起信論』에서는 마구니 外道 귀신(鬼神)의 혼란(惑亂)을 말하는데 선근(善根)의 힘이 없을 때 일어난다고 한다.¹⁾ 좌선 중에 모습을 나타내어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단정한 남녀 등의 모습을 나타내어 어지럽게 한다고 설하고 있다.²⁾

원효스님은 이 수행의 마장(魔障)에 관해 「해동소(海東疏)」에서 수행자의 갖추어야 할 수행조건 중에 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계(戒)를 가짐이 청정(淸淨)해야 업장(業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만약 청정하지 못하면 반드시 참회(懺悔)하라”³⁾고 한다.

또 “만약 출가인(出家人)이라면 응당 계율(戒律)을 외위야 하며 만약 재가인(在家人)이라면 응당 보살계본(菩薩戒本)을 외위야 하며 만약 삼귀오계(三歸五戒) 등을 외우면 귀신이 도리어 도망간다”⁴⁾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소 이러한 네 가

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①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 대한 自覺, 즉 발보리심(發菩提心) ② 바른 견해, ③ 믿음과 ④ 계율, 이같이 수행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은 모두 최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발보리심은 괴로움에 대한 자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보리심인 최초의 바른 원(願)이다.

바른 견해[正見]는 수행에 들어가지 전의 최초의 길잡이이다.

믿음은 바르게 출발하는 수행의 첫걸음, 계율은 수행 중에 나타나는 마장(魔障)을 막는 최초이자 최후의 방어막이다.

1) “或有衆生 無善根力 則爲諸魔外道鬼神之所惑亂”

2) “若於坐中現形恐怖 或現端正男女等相”

3) “二者 持戒淸淨 謂離業障 若不淨者 必須懺悔故”

4) “若出家人 應誦戒律 若在家人 應誦菩薩戒本 若誦三歸五戒等 鬼便卻行 匍匐而出也”

출가란 무엇인가

- 『출가란 무엇인가?』(사사끼 시즈카, 대장출판사, 1999년)를 읽고 나서

지관(智觀) / 송광사 율원 교수사

출가란 무엇인가?!

출가라는 것은 부모, 친족과의 인연을 멀리하고 가정과 재산을 버리고 수행생활에 몸을 던지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를 말한다. 이 출가라고 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세간이라고 불리는 세계와, 그 세간에서 나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수행자의 세계가 그것이다.

출가란 세간에서 이 수행세계로 한 발자국을 내 딛는 것을 말한다. 이 한 발자국을 내 딛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간의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공통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 세상이란 어떤 누군가 혼자 설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룹생활을 해 가는 동안에 자연히 형성되어 온, 天然物이라 할 수 있다.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부감 없이 이 세간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가 속한 세계의 가치관 속에서만 살아간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불만 없이 그것을 따르고 일생을 끝낸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 세간의 가치관에 순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세간의 현실에는 그런 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세간을 나오고 싶으면 죽음을 택하던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자급자족의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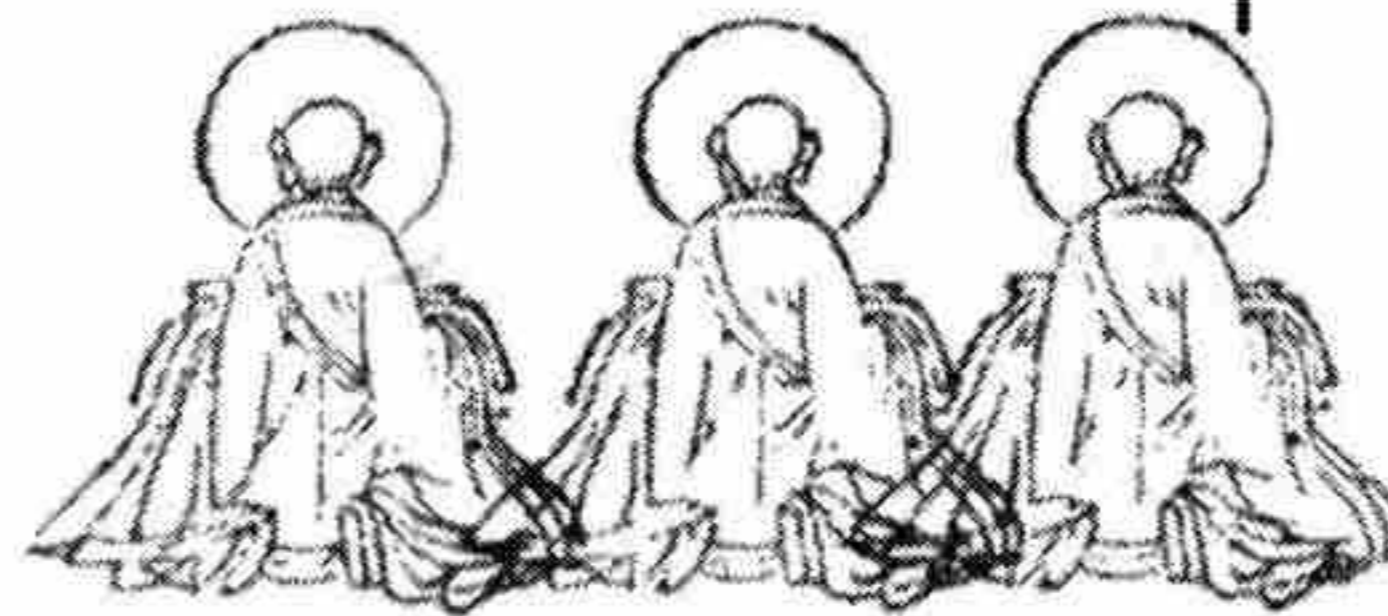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그룹만의 개별적인 독립사회를 만들어 일반 사회 속에서 독자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방법]이 있다. 이것은 마치 바다라는 균일한 세계에서 전혀 가치관이 다른 사회, 작은 섬이 홀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 작은 섬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天然物이 아니다. 그것은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人工社會인 것이다. 이런 人工物[사회]이기에 그 형태는 그 사회를 만든 구성원들의 의향에 좌우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의 사회이던지, 세간이라는 천연자연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인공의 섬은 그 자신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일반사회와 접해 있는 형태로서 살아가
야 하는 이상, 주변의 세간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간에 대하여 어떤 식의 도움을 주고 그 보답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을 얻는 식의 관계가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특별한 그룹은 때와 장소를 바꾸면서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
재해 왔다. 그리고 세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인공의 그룹에 들
어 온 이상은 그 「출가」라는 행위와 삶의 형태가, 세간과는 다르게 존재하고 있지 않
으면 안 된다. 출가라는 행위가 세상을 등지며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자
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각자가 ‘불교란 본래 어떠한 특성을 가진 섬 사회인가?’ 라고 하는, 정말로 기본
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는 석존이 만든, 그 독자적인 섬 사회가 본래 어떠한 형태였던가, 그리고 출가라는 의식
에 의해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생활을 했던가라는

출가, 세간에서 수행사회로 내딛는 걸음.
독자적이면서도 공유의 삶을 형성하는
승가 그 본래의 취지를 잊지 않아야...



점을 좀 더 짚어 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다양하게 발생해 오는 현대
라는 시간과 불교라는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답들을 돌출해 낼 수 있는
공유 작업이 필요하다. 정말로 그 섬 사회가 석가모니가 의도했던 독자적이고 독립된 사
회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다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채 似而非社會로 추락
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석존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고통에 차 있는 세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출가를 지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게, 큰 마음먹고 내 디딘 불교라는 섬 사회가, 출가의 본질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축서사.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움틀만한 곳이던가? 부처님 설법의 메아리가 現響하는 영축산을 옮겨놓음인가? 눈 앞에 장엄하게 펼쳐진 소백산 줄기와 병풍처럼 감싸 도는 문수산은 汎學의 가슴에도 생사의 결단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10여년을 이 곳에 머물며 한국 선풍의 맥을 계승시킨 큰스님을 친견하기 앞서, 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되돌아 볼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조심스럽기만한 선지식 탐방, 특히 몇 번의 청을 거절하였기에 더욱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 우리를 반겨주시는 큰스님의 음성에는 자상함과 포근함이 가득하였다.

편집부

정혜탐방



축서사

무여(無如) 스님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건강은 좋은 편이고요, 늘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난 아주 부족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저 조용하게 칩거하듯이 그리 살고 있어요.

현재 불사 중이신데, 이 도량에는 몇 분이나 함께 정진하시는지요?

저기 이층 방 보셨지요. 거긴 두 분이 앉으면 엉덩이가 맞닿아요. 거기서 두 분이 하루에 18시간씩 용맹정진하면서 잘 사십니다. 그 옆에 토굴에는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열 대여섯 시간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밤 1시에도 목탁소리가 나구요. 보잘 것 없는 도량인데, 나름대로 애쓰시고 잘들 살아요. 탑 있는 데 선방에 계신 스님도 묵언하시며 잘 사시죠.

사실 저같이 선원에서만 20여년 가랑 얻어먹고 살던 사람은 불사하고는 거리가 먼데, 여기 와서 살아 보니까 도량 자체가 좋다는 것이 느껴져요.

천하명당이라 하는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세 철 정도 있는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살아보니까 거기처럼 양명하고 힘찬 도량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비좁고 마땅치가 않아 겨우 몇 사람 살 정도였는데, '그렇게 살긴 아까운 도량이다,' 그래서 좀 수행자들이 와서 쉬고 묵사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살 만한 공간을 만들어도 좋겠다, 내 힘으로 안되니까 기초작업이라도 좀 해

놓자 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불사가 조금 커졌습니다.

내년쯤에는 선원을 지을까 합니다. 성토한 땅은 다져지는데 한 7-8년은 지나야 건물을 지어도 뒤에 탈이 없네요. 내년 정도면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늦게 출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출가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출가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한때 역대 조사스님들의 행장을 기록해 놓은 '전등록'에서 견성하신 스님들의 연령을 대충 뽑아본 적이 있는데 20대 후반에 견성한 분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 초반이었어요. 요새 30대 초반이 보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늦습니다. 허나 사실은 나이가 문제가 안 되요. 얼마나 발심을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협존자(脅尊者)'라는 분이 있었어요. 허리(脅)를 땅에 대지 않고 잤다 해서 협존자인데, 80살에 출가하셨다고 그래요. 늦게 출가했으니 주위에서 노장이 죽을 때가 되니까 왔다는니, 아들한테 쫓겨났다는니, 먹을 수가 없어서 입칠하기 위해 왔다는니, 별 얘기들을 다했지요.

그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낮에는 경전을 읽고 저녁에는 정진을 하는데 눕지 않고 열심히 해서 3년만에 깨쳤어요. 후대사람들이 하도 존경스러워서 '협존자(脅尊者)'라 불렀지요.

80에 출가하든 100세에 출가하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발심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참으로 발심한 분은 '이 공부는 의외로 쉽다'고 얘기해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발심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떤 노장스님은 '화두 안되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발심 못한 것을 한탄하라' 하셨어요.

출가를 흔히 집을 나오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안됩니다. 완전히 세속을 잊어야 해요. 그런가 하면 참으로 정진을 지극하게 애써서 해탈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행을 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출가래요.

허나 요새 스님들 중에서는 별로 발심을 못한 상태에서 출가하신 스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이 삼십년 수행해도 세속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세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스님들도 있어요. 스님들은 그런 스님이 되면 안되요. 중은 똑 소리가 나야 해요.

70년대 중반에 돌아가신 해인사에 지월스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일타스님 말씀에 '아, 지월스님은 자다가 생각해도 중님'이라는 거예요. 자다가 문득 생각해도 '그 스님은 틀림없는 중이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냄새가 물씬 풍겨야 되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한 발심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철저한 수행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출가자는 완전히 세속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진을 지극히 애써 해탈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보살행을 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늦게 출가한 분은 분심을 내서 애
를 써야 됩니다.

대중처소에서 도반스님들과의 탁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수행자는 가급적이면 대중처소에
서 살아야 합니다. 선 수행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사뭇 잘
돼서 대중이 짐스럽고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깐 한 두
철 토굴 같은 데서 살 것이지 항상
대중과 함께 사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이런저런
말씀 중에 '아무데 강원은 세속의
학교 비슷하다고 하더라. 말씨도
거칠고, 행동도 스님답지가 않더
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강원에 사는 스님 모습이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지만 여러분은 최고의 길을
걸고 있어요. 어떤 길보다도 우선

하는 것이 부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좋은 길을 걸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요즘은 법문만 잘한다고 스님 대
접 못 받아요. 행이 따라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존경심이 나와서 하
지 말라고 해도 절 삼배가 나와야
해요. 그런 분이 될 분들이 학인 스
님이에요. 그런데 학인 스님들이
'말씨가 거칠고 행동이 스님답지
않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에
요. 최고의 길을 걷는 수행자라면
서로 존댓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같은 도반끼리 발가벗고 맞대고
사는 사이지만 존대어를 써야 해
요. 수행자는 말부터 달라져야 됩
니다.

말도 중님 말이 돼야 해요. 행은
거룩해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
어나면 서로 도반끼리 맞절하면서
'성불하십시오' 할 정도가 돼야 해
요. 도반 알기를 부처님 모시는 정

도로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
가 흔히 보살행, 보살행 하는데 보
살행은 강당에서 배워야 해요. 매
일 대중을 위해서 선행을 한 가지
씩만 해 보세요.

옛날 스님 중에 이런 분이 있었
대요. 시골길을 가니까 막 개가 쫓
는 기라. 아주 부끄러웠다는 거예
요. 갓춘 사람은 개도 알아줘요.
수월 스님의 일화가 있잖아요. 당
시 만주에는 마적단이 많이 출몰
해서 마을에 개를 많이 길렀어요.
저녁에 어스름할 때 지나가면 그
개들이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월 스님 얼굴은 아주
볼품없이 피죤피죤한 게 촌노인보다
도 더 남루한데 지나가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따라 다닌대요.
그렇게 동물에게도 감화가 돼야 진
정한 수행자래요. 그런 존경스러운
모습들을 갖추려면 말이나 행동 같
은 것은 출발부터 달라야 해요. 그
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전부에게
유익합니다.

수행하시면서 가장 환희심이 나시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입이 쑥 들어가
는데... 이런 얘기해야 되나.

제가 처음에 선원에 들어가서 첫
철을 좀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첫
철에 화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되겠구나.' 자신감이라고
할까 약간 건방진 생각도 좀 들었
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
각을 하니까 좀 느슨해지네요. 한
2-3년 별 진전 없이 지내는데 오히
려 첫 철만 못한 것 같아요.

그때는 참선하는 사람이 책을 안

봐야 된다 해서 책을 안 봤어요. 신문 같은 것도 일체 안보고 전혀 외면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그 시절을 ‘잃어버린 세월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쯤 해제철인데 남들 다 나가고 큰방에 혼자 있는데 우연히 아는 객스님이 오더니 《선관책진》이라는 책을 주데요. 노란 표지에 석주 노스님이 한글로 《선관책진》이라고 쓰고, 광덕 스님이 역주를 해서 조그맣게 제본한 책이 있어요. 책을 안 볼 때라 망설이다 봤는데, 이틀 만에 세 번을 봤어요. 처음으로 그런 책을 보니까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목마다 탄성을 하면서 ‘이런 책이 다 있구나.’ 그때 발심이 됐던 것 같아요.

《선관책진》은 옛날 조사스님들 좋은 법문하고 애써서 수행한 수행이야기, 그리고 경전이나 논장에서 참선에 필요한 대목을 뽑아서 중국 명나라 때 운서 주광 스님이 편찬한 책인데 어쨌든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러다 대중처소가 어쩐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대중처소에서 마음대로 정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토굴이 있으면 한번 정진했으면 싶었던 차에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강원도 모처에 어떤 노스님이 계시는데 도인 스님이라고 그러데요.

토굴이라는데 맘이 들었고 도인 스님이라고 하니까 ‘금상첨화(錦上添花)’인거라요. 바로 갔습니다. 물어 물어 들어갔지요.

가니까 토굴이 아주 보잘 것 없는 마을집 같은데 노스님이 계시데

요. 형상은 아주 보잘 게 없어요. 얼굴도 가무잡잡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투리로 촌노인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눈은 부리부리하고 안광이 아주 푹망푹망 하시데요.

낮에는 내리 일만 하시다가 저녁에 앉는데 보면 아주 깨끗하게 앉아요. 온종일 일하는 것 같은데도 저녁에 앉는 거 보면 거의 흐트러짐이 없더라니까요. 이 노장이 뭐 있구나 싶데요.

제가 밥을 하고 노장님이 밖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무렵, 정진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어! 큰일났네. 어, 다 타! 다 타!” “아니, 노스님 왜 그러세요?” 거기서 한 40리 떨어진 곳에 어떤 참한 신도 집이 지금 불이 나서 한참 타고 있다는 거여. 나도 집히는 게 있어서 일어나서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가보니 불은 거의 잡혔는데 노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탔습디다. 나는 그 현장을 보고는 뒤통수를 되게 맞은 기분이 들더라구. 자세하게 현장을 보고 돌아오니까 오자마자 ‘어디어디가 탔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본 것보다 더 자상하게 이야기하는 거라. 사실 그전까지는 선(禪)이나 공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잡디다. 그러다 그 일이 있고는 완전히 폭 빠진 기분이예요.

노장님 모시고 한 달 가량을 살았던 거 같아요. 그러다 노장님이 어디 볼 일 보러 갔다오겠다고 가시더니 안 오셔요. 그래서 노장님이 준비해 놓은 쌀이랑 나무랑 채전 갈아놓은 게 있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얼마 안 있어서 결제(結制)

가 됐어요.

밥을 상당히 큰 그릇에 수북하니 해놓고는 불을 땔 때 밥을 칼로 대충 떼어 가지고 솥 안에 놓으면 뜨듯하니 언제라도 먹고 싶을 때 갖다 먹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름만에 밥을 한번씩 하기도 하고 20일 정도에 한 번 하기도 해요. 처음엔 노장님이 담가놓은 김치가 있었는데 겨울에 다 얼어서 못 먹고 된장하고 간장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는 한쪽에 좌복깔고 그 옆에는 결상을 하나 놓고, 좌복에 앉았다가 결상에 앉았다가 번갈아 가면서 앉고, 포행한답시고 왔다갔다 하며 방안에서 걸기도 하고... 어쨌든 소변보러 가는 외에는 나가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저녁엔 불도 안 켜어요. 세수니 삭발같은 것도 안했고, 목욕은 한 7-8개월 정도 안 했던 거 같아요. 옷도 안 갈아입고, 수영도 덤수룩하니 기르고 방도 한번도 안 쓸었구요, 솔도 손가락 가지고 간단하게 살살 씻고는 고만 물 얹어 가지고... 어쨌든 좀 내 땀은 애쓴다고 애쓴 적이 있어요.

흔히 쌀밥만 먹으면 각기병이 걸린다 그런 말하잖아요. 편식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 가지만 계속 먹어도 오히려 살이 찌데요. 간장만 먹어도 어찌 물리지도 안해요. 그렇게 애쓰니까 먹는 것이 좀 조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그때가 내 땀엔 애를 쓰던 때이고 가장 환희심 나던 때 같아요. 그 뒤에도 비슷하게 그때처럼 살아보기도 했었는데 그후에 몸에 좀 이상이 와가지구 제대로 애

쓰질 못했어요.

기억에 남는 경전이나 어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전 경전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도 학인 스님들은 아함경을 좀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읽되 아주 진지하게 자상하게 읽으면 부처님의 체취를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말씀하시고 모습도 갖추어서 따르고 배우려고 애쓰면 좋겠어요. 경전은 요즘도 아함경은 한 번씩 읽는 적이 있습니다.

어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관책진》,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명스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스님은 어떤 추운 지방에 도반 네 분하고 방부를 들였는데, 도반 네 분들은 다 자는데 그 스님만은 밤새도록 꼳꼳하게 앉아서 정진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졸음을 물리쳤다고 해요.

졸음이 올 때면, ‘옛 큰스님들은 안 먹고 안 입고 다 졸음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난 도 대체 어떤 놈이기에 이렇게 게으르고 방종하는가. 아! 나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무슨 보탬이 되는가?’ 한탄하면서 허벅지를 찌렀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고, 어쨌든 옛날 큰스님들 참으로 애쓰는, 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오직 道, 道, 道하면서 사신 그런 일화나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편집된 그런 책

입니다.

저희 송광사에서는 기초수행으로 자비관과 수식관을 합니다.

관법수행과 간화선에 대해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관이나 수식관같은 기초수행법도 결국 관이거든요. 정신을 집중하는 것인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도한 분이 있다고 해요. 요새 남방에 다녀오신 분들이 수식관 같은 걸 익혀서 하는데 뭐 일종의 붓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에서 위파사나를 정말 제대로 지도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은 선지식이 전수해야 돼요. 물론 초보단계, 형식적인 건 누구나 지도할 수 있어요. 그걸 지도한다고 해서 선 수행을 지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화두참선을 지도할 만한 스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은 단계를 두는 것도 좋겠지만 바로 화두참선하는 게 좋을 거예요. 화두는 처음에 좀 안되는 듯해도 진의(眞疑)만 돌발하면 관법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송광사는 승보종찰이잖아요. 보조국사 이하 16국사가 배출된 아주 유명한 그런 전통적인 도량입니다. 그 도량에서는 화두선이 뿌리를 내리고 화두선으로 계승하고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원생활을 하면서도 선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스님들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선원에 가고 싶은 분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선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육법을 고쳐서 강원을 이수한 분은 누구나 선원에서 몇 철 정도는 지내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훗날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하실 분이든지, 포교사 하실 분이든지, 주지 같은 소임 보실 분이나 어떤 분도 선(禪)수행이 바탕 되어야 해요. 경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도 선 체험이 전혀 없는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라면,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선 체험을 해야 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열반경에 보면 ‘나는 일찍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팔만대장경, 얼마나 대단하고 성스러운 말씀이에요. 금과옥조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런 좋은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는 일찍이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노라.’ 이걸 참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못하셨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선가(禪家)에서는 ‘삼처전심(三處傳心)만이 범문다운 범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차(茶)가 있는데 이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자상한 이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맛은 모릅니다. 차 맛은 그냥 마셔봐야 되요. 마시는 것처럼 바로 느끼는 것이 선이래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자상하게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쓰고 아주 노파심절(老婆心切)한 말씀을 해 놓

으셔도 차맛을 직접 마신 것처럼은 못 느껴요.

진리는 느껴야 돼요. 그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표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려면 누구나 반드시 선방을 가서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 자신이 상에 빠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은 늘 자기를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자님은 ‘일일삼성(一日三省)’이라고 했었는데, 세 번까지 반성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매일 한번씩 자기 생활이나 생각, 행동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늘 반성해서 고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늘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되돌아 볼 줄 알면 자기에 대해서 훤히 다 알게 되고, 그리고 판단력도 상당히 좋게 되고.

혹시 내가 내 자신을 판단을 못할 때는 남한테 판단을 해주길 바라기도 하고, 늘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책을 읽든 수행을 하든 항시 정도(正道)를 콧끝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틀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야 되고요. 그렇게 늘 자기를 단련시키고 수행해 나가면 별로 잘못 없을 거예요.

자비의 도량에서 오히려 더욱



▲ 축서사 비로자나불

수행하는 데는 발심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화두 안되는 것을 한탄 말고 발심 못한 것을 한탄하라 했습니다. 이 공부는 나도, 남도 위하는 공부입니다. 대승적인 발심을 해야 해요.

자비심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고쳐나가야겠습니까?

우리 스님들은 참으로 자비해야 됩니다. 자비가 뚝뚝 흐르는 대승 보살이 되어야 해요.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중생을 위해서는 먹을 거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자기 살이라도 떼어줄 줄 아는 분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실망했다는 분도 있는데, 견성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즉, ‘불교가 뭐냐?’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는 것이다’ 할 정도로 이 공부는 나를 위하고 남도 위하는 공부거든요. 대승적인 마음으로 보살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는 소승적인 공부에서는 절대로 큰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적인 발심을 해야 됩니다. 나도 깨치지 않지만 남도 깨쳐줄 수 있는 지극한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참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부에선 선지식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조 말엽 그 암흑기에도 경허스님 같은 특출한 분이 출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특별한 예입니다. 이조 송유억불 정책으로 우리 불교는 자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상태였어요.

또 일제 때는 관제 불교가 성행했어요. 그래서 수행다운 수행을

하기가 좀처럼 어려웠어요. 그 뒤에 해방과 6.25 직후 정화라는 쓰러린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행할 만한 풍토가 못됐어요. 수행한답시고 애쓰던 스님들이 다 나가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으니까요.

한편 요즘 선원의 근기라고 할까요. 흔히 ‘부처님 가신 뒤 말법세상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수행하는 풍토가 점점 흐려지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쓰는 이가 드물고, 애쓰다가도 이내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애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속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높은 파도의 물결로 다가옵니다. 송광사도 10년쯤 뒤에 가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아주 수행하기 어려운 풍토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정신들 바짝 차려 가지고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물리쳐서 정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 불교가 살아야 세상이 살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진수, 불교적 진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는 진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이 지구를 만들었고 움직인다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건 중세기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어쨌든 불교 같은 종교가 큰 힘을 발휘해서 인간들을 제도하고 살기 좋은 불국토를 만드는 데 애써야 될 것 같아요. 스님들의 책무가 아주 큼니다.

공부하신 스님이라면 어떻게 열반해야 될까요?

흔히 조사열반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조사열반은 앉은 자세로 가시는 것을 말해요. 앉은 자세로 간다는 것은 가는 순간까지 화두를 해서 공부가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즉, 화두를 하다가 딸각 가야 그래야 앉아서 갈 수 있어요.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무수한 도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배출됐어요. 그때는 앉아서 가는 건 보통이고, 서서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 미루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신 분도 있어요. 제자들이 시체 끌어내리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도반 장례식에 가니까 한 사람 장례하는 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거든. 당신도 여러 사람 고생 시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순간 나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던 거라. 막 거화하려고 하는데, ‘어, 잠깐! 날 좀 올려줘’ 도반 시체 태우려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올려달라고 하더니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가신 겁니다.

또, 등은봉(鄧隱峯) 스님. 그 유명한 분이 약간 괴각이었던가 봅니다. 여러 스님들이 차(茶)공양 하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특별히 가는 것인가? 어떻게 가는 게 잘 가는 것이냐?’ 물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농담처럼 ‘물구나무서기해서 가면 잘 가는 겁니다.’ ‘그래, 참 그렇게 간 분은 없지’ 하면서 노인답지 않게 물구나무서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꼳꼳하게 굳어지는 거래요.

물구나무서기해서 계속 서 있는 거라. 장례식 날인데, 관에 모셔야 되는데 그냥 서 있는 거래요. 동생 되는 분이 비구니였던가 봐요. 오빠 스님 장례식 한다고 왔는데 괴각스럽게 물구나무서기 해 가지고 돌아가 계시거든. 그래서 군중 속을 헤치고 나오면서 한마디 하는데 ‘오빠는 살아서도 괴각질하더니 돌아가서도 괴각질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더니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조사열반이라고 그렇게 들 마음대로 갔어요.

그런가 하면 염불하신 분들도 잘 가신 분이 있어요. 직접 목격을 했는데, 앉아서 가신 건 아니고 강원도 토굴에서 내 아는 스님인데 선에 출가했어요.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늦게 출가해서 대중처소는 갈 수 없고 해서 토굴로 토굴로 옮겨 다니며 염불하던 분이래요. 그때가 장마철인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니까 사흘만에 당도했어요. 돌아가신 이유는 모르고 아래마을 처사가 올라와서 발견했다고 그래요. 가니까 윗목에 모셔놓고 시켜면 여름이불로 덮어놨어요.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시체가 빙긋이 웃고있더라니까요.

그래 자세하게 보니까 완전히 살아서 웃는 것 같아요. 몸을 여러 곳을 살펴봤는데 엉덩이만 색깔이 조금 변하고 깨끗했어요. 뻗뻗해야 될텐데 오히려 포동포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염불을 하다가 염불이 잘돼서 아주 기분 좋은 법열(法悅)을 느끼다가 느끼는 순간 딸각 가신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참 잘 갔어요. 참 신심(信心) 납니다.

마지막으로 학인들에게 경책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율을 좀 철저히 지키시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요새는 강원(講院)도 옛날 어른 스님들 강원과 달라서 마시고 먹는 것도 예사롭게 생각하고, 율(律)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싶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율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내면이 쌓이지 않아요. 건물을 짓는 기초와도 같은 계행을 잘 지켜야 도(道)가 생깁니다. 계행을 제대로 갖추어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선정에 들어가야 지혜가 갖추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방 불교나 대만 불교가 주목받는데 그분들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태국 스님들은 여자들을 상대 안 한대요. 1년이나 2년 단기 출가를 하는데 단기 출가한 분은 간혹 면회를 한답니다. 자기 부인이나 딸이 면회와도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얼굴만 보고 만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너댓 살 먹은 아이라, 아빠를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오면 안 된다고 막 오지 말라고 하다가 그래도 오니까 딸도 여자라 외면하고 얼른 피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

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태국불교를 유명하게 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래요.

흔히들 말법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승가에도 타락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뭘로 막아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계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서서히 세속의 물결이 어느 사이에 우리를 흔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공간마저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설사 있다고 해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공간일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 되면 우리 승가는 아무리 스스로 정화한다고 해도 말뿐인 정화라 승단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는 반드시 지켜야 되요. 요즘 같은 말법의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텐데, 계율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한 계행정신으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말라야 고원의 사람들은 독수리가 썩어가는 육신을 먹고 영혼을 맑음의 세계로 옮겨준다고 믿고 있다. 아마 鷲棲寺는 그 영혼들의 쉼터일 것이다. 고요함 가득 해맑은 미소를 머금은 무여 큰스님이 계시기에 모든 이의 번민은 다 맑아지고 수행자의 발길은 밝아질 것이다.

축서사의 하늘엔 따사로운 햇살 가득하고 겨울 공기는 청량하기만 하다.

무여스님

1940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 1966년 출가하여 1968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의 손상좌인 희섭 스님을 은사로 수계. 상원사, 묘관음사,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전국 선원에서 20여년 동안 수선안거하셨다. 1987년 이후 경북 봉화 축서사에 주석하시며 불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고 계신다. 칠불사, 망월사 선원등의 선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으로서, 전국 선원 대표로서 조사선의 가풍을 새롭게 정립시키는 데 힘을 쏟고 계신다.

소중한 인연

지암(地巖) / 치문

오늘 정혜사 편집장님께서 송광사 학인은 백일장에 빠짐없이 참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는 물론 여지껏 한 장의 편지도 누구에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말도 안 되는 글을 쓸까 합니다.

이것은 저만이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만 저의 은사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볼까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려고 보니 잘못 써서 은사스님께 누가 되거나 앓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표현력이 부족하여 마음에 있는 것도, 보고 느낀

것도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오늘도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예불 올리면서 은사스님이 떠올라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는 있었으나 유난히 은사스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늦깎이 행자입니다. 이미 황혼으로 접어든 나이 오십,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만났으며 저의 은사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벅차고 한숨마저 나옵니다.

이런 생각에 예불을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저의 머리 속에서는 갖가지 영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가 반복되면서 예불시간 내내 은사스님과의 일들을 생각케 했습니다. 늙은 행자에게 자상하게 잘해주신 생각에 예불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행자시절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은사스님의 말씀을 쓰고자 합니다.

제가 사미계를 받으러 가기 위해 준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님께 서는 직접 바루와 걸망을 챙겨오셔서 저를 앞에 앉혀놓고는 바루 펴는 법, 걸망 메는 법을 일일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계 받고 오면은 열심히 공부하여 중노릇 잘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피를 나는 혈육지간이며 부모자식지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앞을 가려 그 앞에 앉아있기가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은사스님께서는 자상

함과 자비스러움을 저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연세 구십에 오십 먹은 제자를 보내면서 말입니다. 은사스님의 은혜로 저는 계를 수지 하였고 송광사 강원에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행자시절의 이야기를 좀더 하고 싶습니다. 행자시절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연세 구십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손수 저를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진찰 받도록 하였습니다. 병원장님에게는 잘 보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꼭 고쳐 주겠다”는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저보다 불편하실 터인데도 당신의 건강은 뒷전에 두시고 저에게 베푸신 은혜, 지금 이 순간 생각하여도 하늘이 다하도록 갚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제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은사스님을 모시게 되었는지요. 이렇게 송광사 강원에서 중물들이는 영광을 받게 되었는지요. 강원생활이 지금은 힘들어도 은사스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여 중노릇 잘해야 하느니라.” 하신 말씀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음 속에 깊이깊이 다짐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것만이 늦게 출가하여 막중하게 입은 은사스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도반 스님들에게도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중 위 어른 스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언젠가 읽은 책에서 본 내용인데, 남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에서는 대단히 특이한 방법으로 나무를 한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끼나 톱으로는 도저히 자를 수 없는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방법인데,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그 나무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그 나무가 쓰러진다는 내용이다.

내가 송광사 강원에 입방해서 살게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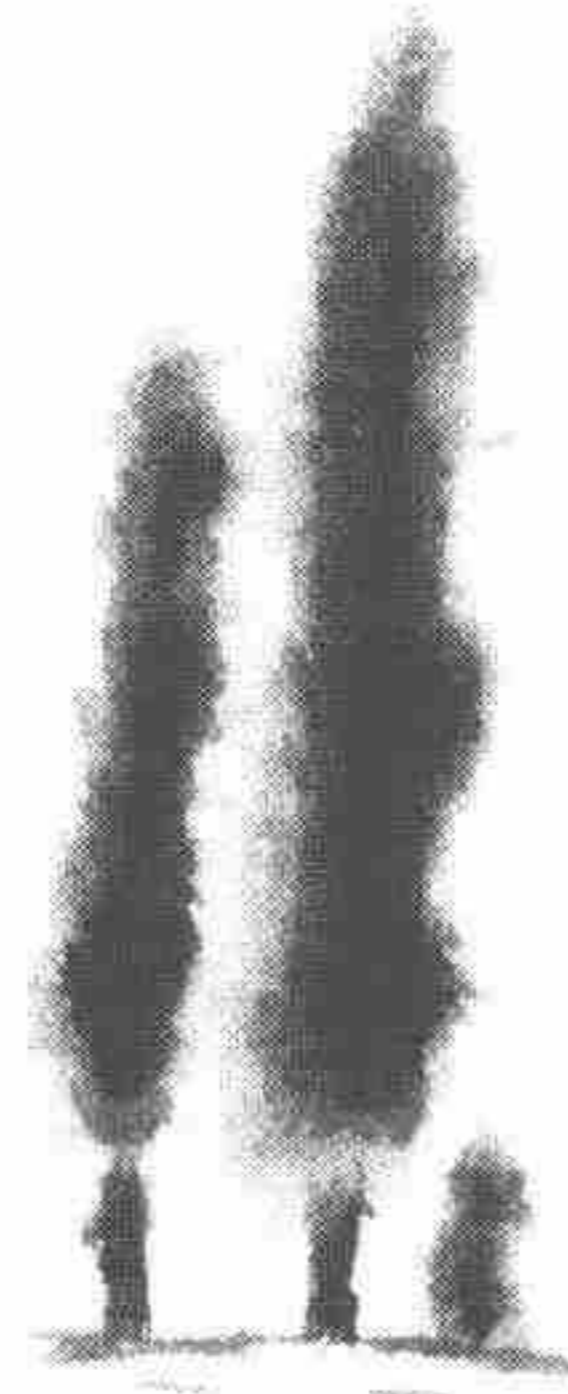
강원이라는 곳의 설립목적 및 생활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의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대중생활을 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대중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 하나가 다른 도반 스님에게 이익을 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를 주거나 정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삼경 이후 30분 동안은 큰 방에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든지, ‘공양 및 예불은 정해진 시간까지 착석해야 된다’ 등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말조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의 맨 처음에 소개한 이야기는 이 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이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온 숲의 나무조차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한 계속된 폭언 욕설에

손 안대고 나무하는 법

일화(一和) / 치문



는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는 우화 같은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언행을 철저히 반성하게 한다.

인과를 믿는 출가자의 한 사람으로 남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과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어찌 이 이야기가 송광사 강원에서만 해당되고 우리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모두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오늘 수각장에서 어떤 스님이 슬리퍼 뒤집어 놓고 그냥 나갔습니까? 내가 뭐 스님들 뒤치다꺼리나 하려고 강원에 온 줄 아십니까?”

“그러는 스님은 지대방에서 어질러 놓고 그냥 나간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도반 스님들 간에 보이는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모습이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게 된다. ‘왜들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좀더 쉽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어찌면 사람이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등 여러 생각을 해 보지만 우리가 초발심 수행자이기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수행이란 과연 무엇인가? 선방에서 조용히 참선하며 화두를 들고 있는 것만이 수행이냐고 물으면 모두가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수행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이러한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본다.

폭력은 사람의 육체를 멍들게 하지만 폭언은 상대의 마음을 멍들게 한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의 가슴을 멍들게 했는지 다시금 생각한다.

세한도(歲寒圖)

중현(中玄) / 치문

소나무, 잣나무가 푸르러 조락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중 「백이열전」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세상이 모두 혼란 오락할 때라야 청렴한 선비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세한도(歲寒圖)>를 그리게 된 연유를 써 내려간 글 중에 제자 이상적이 자신을 대하는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하며 역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松柏의 푸르름을 보며 일전에 남산 타워에서 보았던 서울의 야경을 함께 떠올립니다. 계단을 올라서는 순간,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무수한 불빛들은, 섬광처럼 번쩍하며 그간 풀지 못하던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불빛들 하나 하나가 모두 욕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실 머리만 깎았지 중이라기엔 아직 먹물이 한참 덜 들다 보니 그냥 그렇듯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웠음은 어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런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묻어 두고 지냈나 봅니다. 도시의 야경은 단지 그런 마음을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었을 따름입니다.

처음 머리를 깎으면 외우는 <계 초심학인문>은 '대저 처음 발심한 사람은 나쁜 벗을 멀리 여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때 '왜 보조 스님은 많고도 많은 말 중에 이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 궁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소나무의 푸르름이 유난히 실감나는 계절입니다.

이파리 모두 낙엽으로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로 남은 나무들 사이에 드문 드문 서 있는 푸른 소나무는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런 정경은 매서운 겨울 바람과 함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공자는 '차가운 계절이 되어서야

숙제 하나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가슴 한 구석에 은근하게 자리잡고 있던 막연한 그리움 내지는 허전함의 정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도시, 그 도시가 흘리는 갖가지 욕망과 충동들, 이를테면 호프집의 시끌벅적함과 끈적끈적함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21세기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위해 영취산의 설법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금했었습니다. 요즘 와서는 초심자는 겨울이 되어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라기보다, 도시의 야경을 장식하는 아주 작은 한 점 불꽃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록 머리는 불법을 가까이하지만, 가슴에는 이런 저런 욕망과 본능적 충동이 언제라도 여건만 갖추어지면 밖으로 빠져 나오기 마련인 그런 허약한 마음이 초심자의 실상이기 때문일 것입니

다. 보조 스님이 생각한 나쁜 벗은 내 속에 있는 나쁜 벗, 수행을 방해하는 온갖 망상과 욕망들을 말하는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초심자일수록 내부의 나쁜 벗은 욕망을 미화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바깥의 환경과 만나면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 설쳐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바깥의 경계에 꼬달리기 쉬운 것이 사람 마음인 것을 잊지 말라는 보조 스님의 간곡한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겨울이 되어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지라도 올곧은 수행자의 상을 지키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그저 가진 것 없이, 그나마 있는 것 다 드러내고 있는 양상한 한 그루 겨울 나무일 뿐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는 허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남산 어디엔가 철갑을 두른 소나무가 있을 터인데, 스님은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혹시라도 보시면 다음 기회에 꼭 보여 주십시오.

살아 남은 자들의 몫

석두(石斗) / 치문

치문반 시절을 돌이켜 보며.....

먼저 이런 제목으로 치문반 시절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세월의 무상한 흐름을 새삼 느껴본다. 또한 스쳐 지나간 많은 도반 스님네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떠오르면서 잠시나마 추억에 잠겨본다.

남은 자 말 없어 남았으며, 떠난 자 말 있어 떠났는가?

위기, 좌절, 실망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허나 받아들이는 이의 태도에 따라서 작은 모래알을 태산 같은 바위의 무게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 생각을 내서 결망을 용감하게(?) 싸고 씩씩하게 산문을 나섰으나 어디 그 발걸음이 끝까지 가벼웠을까? 자의(自意)든지 타의(他意)든지 떠난 그들은 남은 자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당은 강당의 모습대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가고 우리는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역류해 보기도 하고 순화되어 차츰 깎여가면서 살아남은 자(?)로서의 몫을 해내고 있다.

치문반 시절을 보내면서 나는 부

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은 고(苦)다'라는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곤 한다. 강당생활 가운데 어디 만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나 자신도 아마 은사스님의 얼굴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글을 다른 강당에서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곤 한다. '속가의 부모님께 불효하고 또 다시 불가의 은사님께도 불효할 수는 없다' 라고..

다른 도반 스님네들의 위기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경우에는 윗말이 가장 효과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심리요법이다. 이제 치문반을 마감하는 시절에 이르러 나는 다시금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큰 뜻을 품고 출가해서 도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나선 수행자의 길은 아닐지라도, 계를 수지하고 내 자신과 은사스님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그 시절의 풋풋한 의지는 퇴색되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면 절망감에 휩싸이곤 한다.

환경에 적응되어가고 주위와 조화되어 가는 내 모습 속에서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내부의 갈등에 고민하곤 한다. 나의 독특한 본질. 나만의 색깔은 무리 속에 뒤섞여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수행자의 모습을 흠모하였으나 '아닌 것'을 '아닐 수도 있겠지', '진실'을 '진실이 될 수도 있겠지'하며 한 걸음 물러나 주체자가 아닌 방관자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곤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대중 속에서 나를 지키고 조화시켜 가는 것'이라고 합리화시켜서 나를 세뇌시켜 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마 이런 대중의 병에 걸려서 자신의 색깔을 잃어 가는 것이 아닐까? '모두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가장 보수적인 종교의 집단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면 스스로를 보수의 물결 속에 내맡겨놓고 그 이익을 같이 향유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수없이 우리를 주지시키는 것은 아닐까? 홀로 고독하게 많은 대다수의 힘과 겨룬다는 것은 외로움과 고통을 각오하지 않으면 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과 환경과 여건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좋은 것은 더욱 좋게, 나쁜 전통은 과감하게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주의 주인은 '나'이지 우주가 '나'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묘를 만나다

진관(眞觀) / 사집



선묘(善妙)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텅 빈 사과 과수원의 묵은 향기와 노란 은행나무만이 늦가을 저녁객을 맞이해 주었다.

동안거라는 길고도 지리한 동면을 얼마 앞둔 시점, 겨울을 시작하는 대지로부터 정직한 보림(保任)을 배우기 위해 길을 나선지 며칠, 오랜 체증처럼 남아있던 선묘를 만나고자 부석사에 들렀다.

대체 선묘가 누구이며 나에게 어떠한 인연이 있기에, 부석사 하면 유명한 배흘림기둥의 무량수전을 제쳐두고 선묘만을 찾는지 나도 모르겠다.

지금 생각하면 출가 전 선묘는 나의 대표적 여인상이었던 것 같다.

사랑하는 수행승을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가여운 여인과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의상스님은 출가를 꿈꾸던 어린 시절 속세에서 꿈꿀 수 있었던 최고의 로맨스였다. 비록 패미니즘시대에 출가자가 말하기에는 겁 없고 유치한 소리지만.

그 시절 이백(李白)의 미인(美人)이라는 시를 음미(?)하며 나에게도 근사한 추억이 있기를 원했었다.

美人捲珠簾
深坐顰蛾眉
但見淚痕濕
不知心恨誰

아름다운 여인 주름 걷어 올리고
깊숙이 앉아 수심에 젖어 있구나.
다만 눈물 자국만 촉촉하게 보이나
가슴속에 누구를恨하는지 알 수가 없네

물론 이 시를 볼 때마다 내 가슴도 애잔하였음으로 변명한다.

그러다 출가후 막 행자생활이 끝나서는

‘산매미
8월 중일 울고
귀뚜리는 늦은 하루를
우울하게 하는데

절 생활 10개월에
늘어난 그리움만큼
다듬어진 염불소리

女人대신 불러보는
관세음 또한
늦여름의 설夢이리’

이라는 낙서로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응어리를 여인의 이름으로 표현했다. 여름날 잠깐 졸다가 꿈에서 본 여인의 모습은 선묘도 관세음보살도 아니었다. 어느 날 문득 가슴 사무치는 외로움을 하루 이틀이 아닌 평생을 도반 삼아야 된다는 막연함과 이제 정말 혼자이어야 한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나도 모르게 여인이라는 대명사를 불렀을 뿐, 애잔함의 여인 선묘는 사라져 가고 있었다.

무량수전 앞 안양루에서 멀리 굽이치는 태백준령을 바라본다. 산굽이의 세월만큼 많은 이들의 원(願)들로 가득했을 법당과 도량에는 유심작조(有心作造)라 하였나, 화엄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던 의상스님의 세심한 손길이 가득하다. 역사는 동시대의 대비되는 걸출한 두

인물을 배출하고는 우리에게 갈림길에서의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 어리석은 자 法性圓融 無二相을 입으로만 외우고 있는지 모른다.

왕족 출신의 의상과 골품제도 속의 원효, 중국에 가서 지엄의 화엄을 계승한 유학승 의상과 국내에서 득도하여 중국에까지 이름을 전한 원효, 왕궁의 비호아래 화엄도리를 펼치는 의상과 무애행(無碍行)으로 대중들과 하나가 된 원효는 여인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대조를 보인다.

요석공주를 만나 사랑을 하고 스스로 소성거사(小星居士)라 칭한 원효와 선묘의 간절한 구애를 물리치고 여법한 수행의 길을 간 의상에게서 우리는 잠시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 극단은 통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대비되는 두 분의 삶의 양식은 누가 올바른가를 구별하는 것 자체를 우습게 한다. 다만 전국의 사찰 대부분이 두 스님을 한 분을 창건주로 모시고 있음이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무량수전을 옆으로 비켜 돌면 자그마한 전각 선묘각이 보인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자신마저 호법의 용이 된 여인을 모신 전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다. 남녀의 관계를 금기시 하는 교단의 풍토상 작은 자각일망정 이것도 다행일까?

선묘각을 열고서 또 한번 놀라고 만다. 어릴 적 가슴에 품고 있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다. 곱고 여린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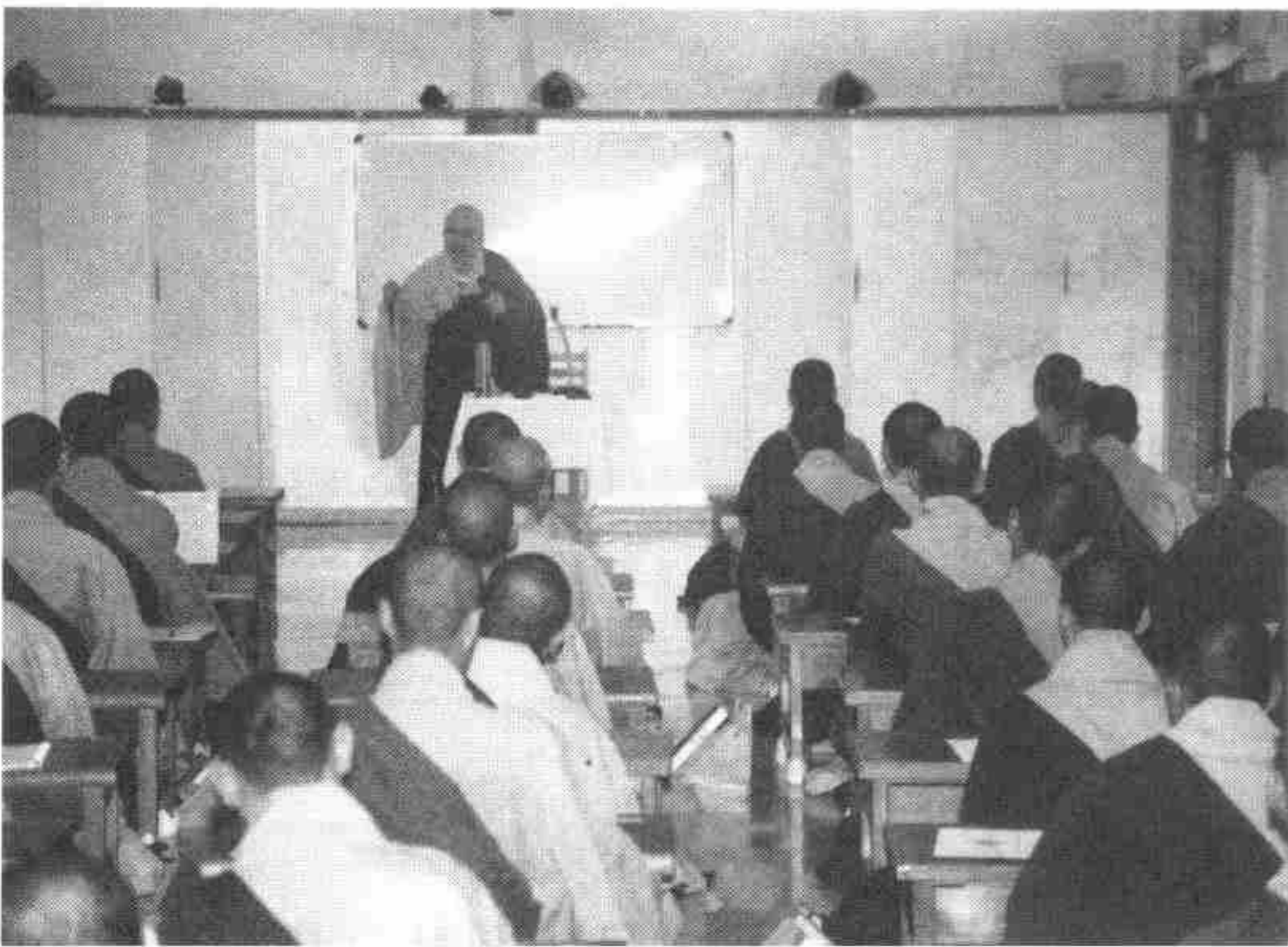
인의 모습이 아니라 중성적 이미지가 가득한 여인의 모습이다. 굳이 과거 속의 여인을 찾아온 나를 경계함인가? 아니면 내마음 속의 여인이 이젠 바뀌어 졌을까?...

오늘 선묘가 아프다고 한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 선묘는 의상스님이 당나라 유학시 스님을 사모한 여인이다. 스님을 수호하고자 원력을 세워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龍神이 되었다 한다.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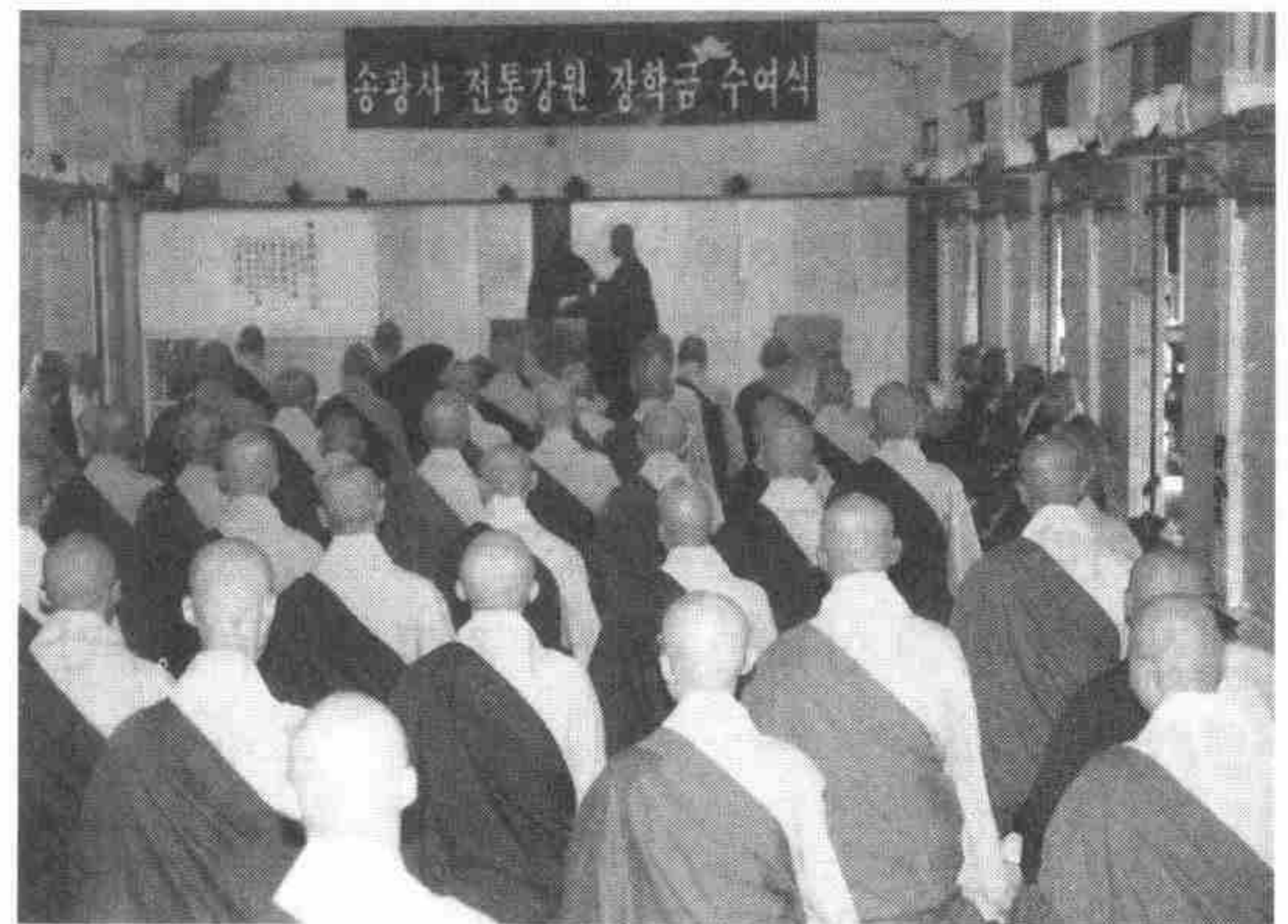


8월 7일 지광스님 특강

서울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현대과학이론 속에서 증명되는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성을 열변하시며, 학인스님들에게 자공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행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8월 23일 장학금 수여식

방장스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장학기금을 평소 생활이나 학업에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스님들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겠습니다.



9월 29일 문바르기 운력

... 이제 황소바람도 걱정없다.
올 겨울을 아늑하게 나기 위해서 법성료, 해청당, 정혜사 큰방 등을 하얀 문종이로 갈아입혔습니다. 스님들의 수행의 열기로 더더욱 훈훈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2일~14일 대만 불광사 방문단 내방

송광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의 불광사에서 방장스님 이하 13분의 스님이 방문했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서로 탁마의 기회를 만들고 더욱 발전적인 수행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0월 25일 감따기 운력

...저런, 까치밥을 너무 많이 남겼나?

어깨가 무겁도록 장대질하고 목이 뻣뻣해지도록 하늘을 쳐다봤는데도 하루종일 따낸 감나무엔 아직도 감이 주렁주렁. 피가 나서 '남은 건 까치밥!'하고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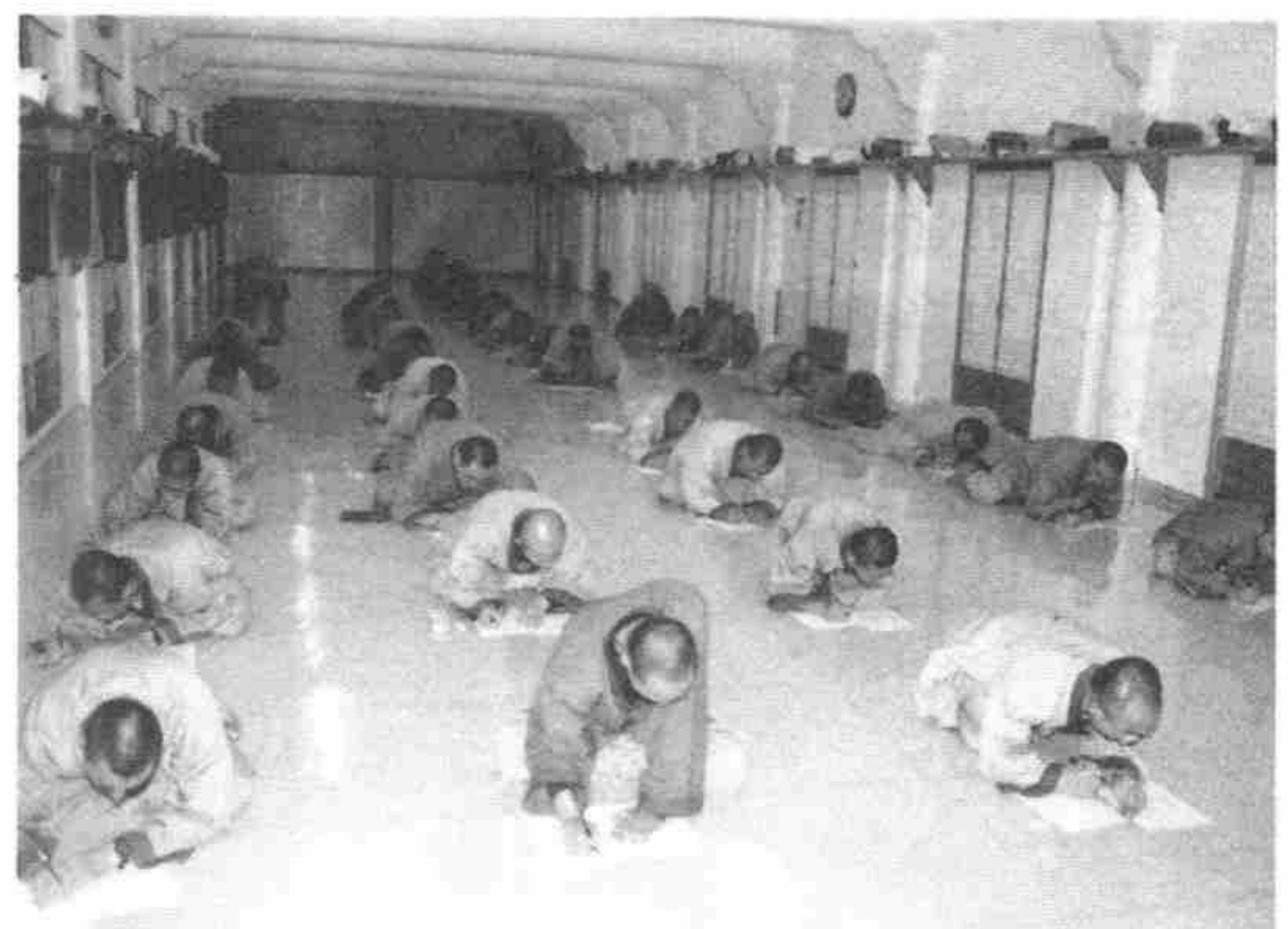
10월 27일~28일 제10회 강원연합 학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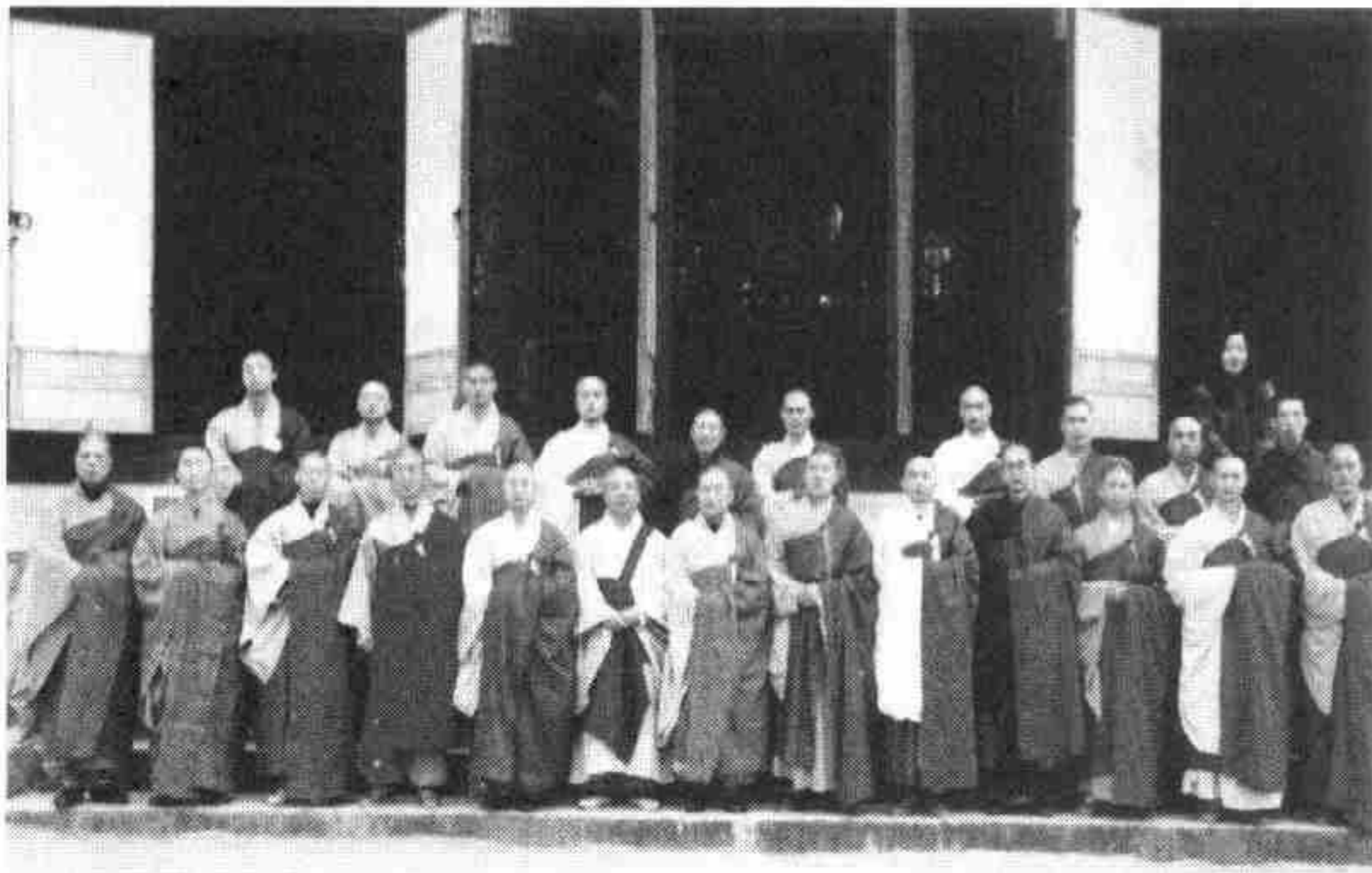
전국 전통강원연합 학인대회가 속리산 범주사에서 열렸습니다. 정진하는 틈틈이 준비한 연극, 서도, 역경, 창불, 각종 운동경기 등으로 서로의 실력을 비교하며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1월 5일 강원 시험일

... 우와, 실력이 많이 늘었네!

정규교과를 중심으로 그동안 익혀온 실력을 필기시험과 문답을 통해 갈마했습니다. 강사스님들께서 그동안 강원스님들의 실력이 늘었다며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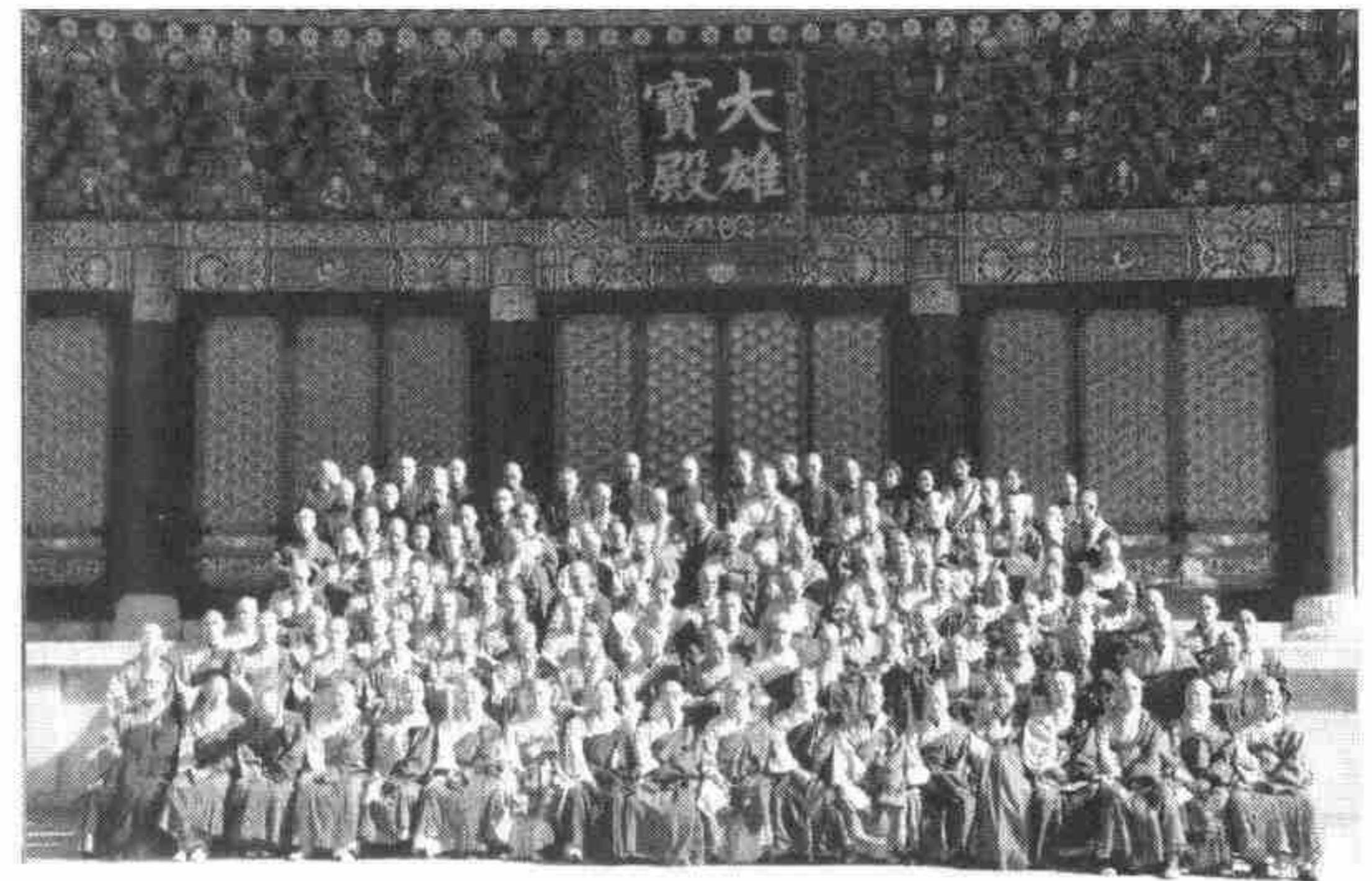


11월 22일~12월 1일 한국불교 수행체험단 내방

중국에서 오신 13분의 중진급 스님들이 9박 10일간 송광사에 머물면서 한국불교의 수행체계를 실수(實修)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불교를 전해준 중국불교가 다시 융틀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1월 22일 동안거 결제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기묘년 동안거에 들어왔습니다. 안거를 지내는 동안 서원했던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대중이 모두 무사히 안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7일 청전스님 특강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를 모시고 수행 중인 청전스님께서 그동안 체득한 방대한 불교지식과 수행담을 자상하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12월 8일 김장운력

겨울철 반살림이라는 김장운력에 전 대중이 힘을 모았습니다. 배추를 뽑아서 절이고 소금물을 행구어내는 등 여러 대중스님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만큼 맛있는 김치가 담겨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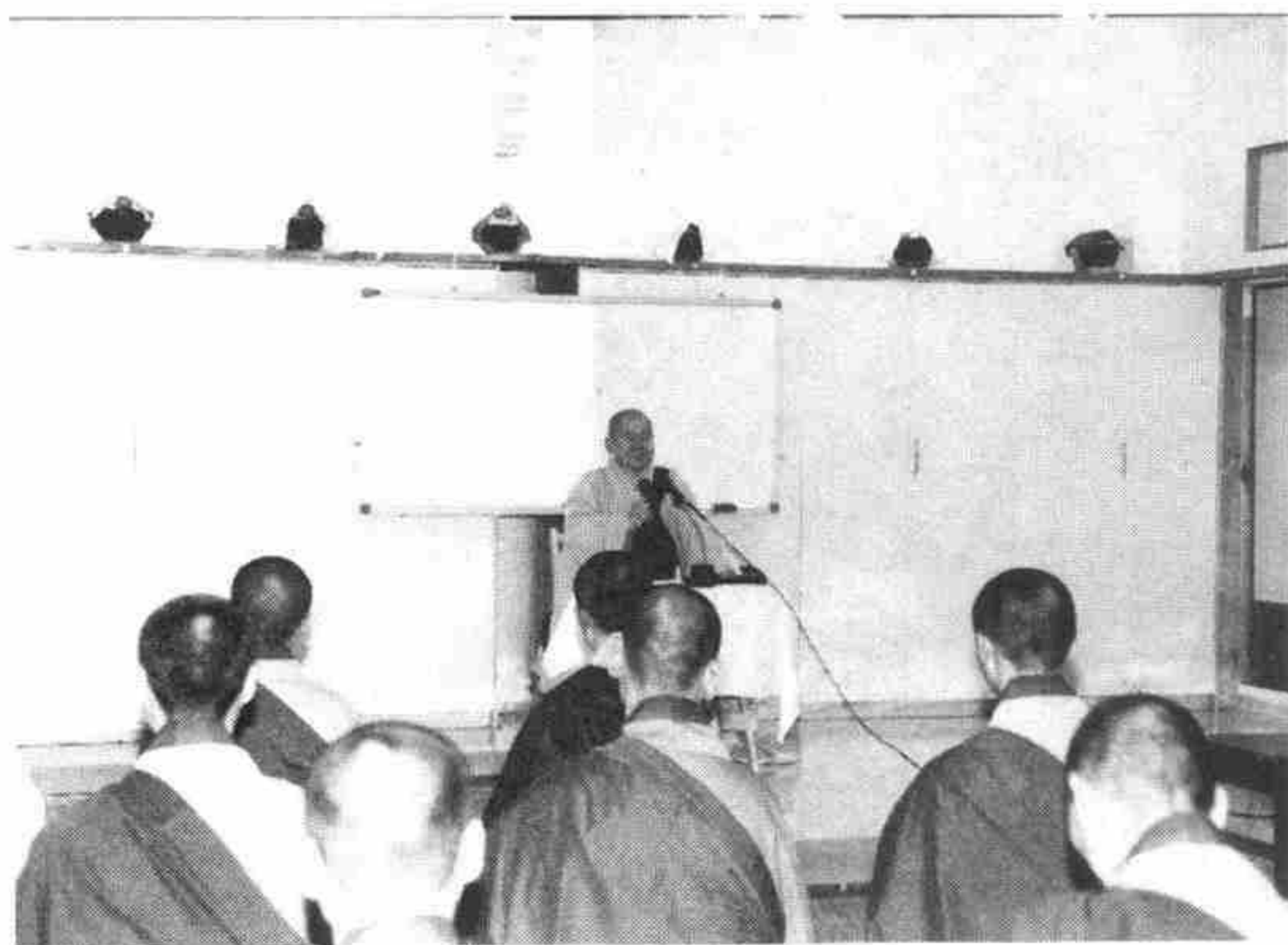


12월 19일 인월스님 특강

현재 수선사(송광사 선원)에서 정진중인 라담 승려 인월(툽텐)스님으로부터 세계불교와 한국불교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캐나다 등에서의 수행담을 듣고 인도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습니다.

12월 20일 페터와의 좌담회

20여년 철저히 무소유의 삶을 살아온 '거지성자' 페터와 강원학인 스님들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양에도 이처럼 철저히 수행하는 이가 있다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2000년 1월 2일~3일 혜국스님 특강

남국선원장이신 혜국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환희심나는 수행담과 더불어 중노릇을 즐겨보자는 말씀은 새삼 듣는 이들을 발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2000년 1월 9일~14일 용맹정진

성도절을 맞이하여 참회기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날에는 자비수참으로 용맹정진하며 참회발심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불일 보조 국사 이래 대대로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를 승보종찰이라 부른다. 면면히 사자상승(師資相承)되었던 16국사의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정혜결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 선양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호에서는 제3세 청진국사 몽여의 행적을 살펴본다.

기획연재

3世 祖師 청진국사 몽여





출가승이 세상에 태어나 남기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3세조사의 행장(行狀)을

정리하기에 앞서 청진암터에 있는
스님의 사리탑을 참배하러 갔다.
부도전을 돌아 식수원이 지나는
길을 따라 산에 오르면 화엄전과
탑전이 한눈에 보이는 산중턱에
모후산(母后山)을 주봉(主峰)으로
삼아 자리잡은 청진암터가 있다.

사리탑에 고개 숙이고 자료가 없는
난감함을 스님께 고(告)해보지만
군데군데 남은 잔설위로 바람만
지나갈 뿐이다.

몇 군데의 돌무더기와 기와 몇 장
남은 사이로 국사님의 앉으신 자리
가늠해 보고 온 마음으로 스님을
맞이하고자 하나 비문(碑文)마저
감추신 국사님은 오시지를 앓는다.
어리석은 후학은 스님께서 남기신
뜻 무엇인지 몰라 산을 휘도는
바람의 청량함만이라도 정혜사에
실고자 한다.



보조국사(普照國師)에 의해 문을
연 조계산 수선사(修禪社)는 제2
대 진각국사(眞覺國師)의 화도(化
度)가 빛을 받으며 흔들림 없는 기
반이 다져졌다.

당시 수선사는 진각국사의 속명
이 최씨인 관계로 정권을 쥐고 있
던 최씨 일가에게서 많은 비호(庇
護)를 받기도 했으나 워낙 스님의
수행력이 탁월한데다 뒤를 이은 제
자들이 뛰어나 국왕과 조정대신들
의 존경과 신망(信望)을 받았다. 그
로 인해 그동안 왕실의 비호(庇護)
아래 세력을 형성해오던 천태종(天
台宗)을 능가하는 고려 불교의 중
심도량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게 되
었다.

진각국사에 의해 총림(叢林)이라
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선 조계(曹溪)
의 다음 법주(法主)가 바로 청진국
사(淸眞國師)이다.

청진국사는 노사조(老師祖 : 보
조국사)와 스승(진각국사)에 의해
이룩된 천하제일의 총림을 힘들어
지 않고 방장(方丈)이 된 복과 덕
을 함께 갖춘 행운아였다.

조계산 제3대 방장이 된 청진국
사의 휘(諱)는 몽여(夢如)이고 자
(字)는 소융(小融)이다. 스님의 탄생
연대는 알 수 없고, 스님이 시적(示
寂) 하신 연대만 전하는데 고종(高
宗) 39년 임자 8월에 입멸하셨다.

입멸하신 곳은 수선사(修禪社)나
산내암자인 청진암(淸眞庵)이 아
닌가 여겨진다. 임금께서 열반의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슬퍼하시며
호를 내리시길 청진국사(淸眞國師)
라 하고, 탑액(塔額)을 적조지탑(寂
照之塔)이라고 하사하였다.

스님의 부도 탑은 조계산 송광사
청진암(淸眞庵)터의 남쪽 기슭에
있는데 비(碑)는 이미 오래 전에
없어져서 스님의 행적을 자세히 찾
을 길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님의
비문을 잃은지 오래이므로 스님의
행장(行狀)은 상고(相考)할 길이
없고, 다만 다른 스님들의 비문에
기록된 바를 통해 유추해 볼 따름
이다.

이규보가 찬(撰)한 진각국사 비
문에서는 ‘혜심(慧諶)스님의 법을
이은 몽여(夢如)스님도 또한 법왕
(法王)이다.’ 하고, 또 진명국사 비
문에서는 ‘일찍이 청진국사(淸眞國
師)를 스승으로 삼았고 이르는 곳
마다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여 그
깊은 뜻을 얻었으므로 옛 사람의
공안(公案)을 통달하여 현관(玄關-
불교의 출입문)에 유인(遊刃)*하고
낙설변재(樂設辯才)를 얻었다’ 하
였다.

또 원오국사(圓悟國師) 비문에서
는 ‘고종(高宗) 23년 병신(丙申)에
선선(禪選)에 나가 상상과(上上科)
에 급제하시고, 남쪽으로 유람(遊
覽)하였다. 그때 청진국사(淸眞國
師) 몽여(夢如)가 수선사(修禪社)
의 제삼세주(弟三世主)로서 조계

* 유인(遊刃) : ‘遊刃有餘地’란 故事에서 나온 말이다. 고기를 저미는 칼을 자유자재로 놀린다는 뜻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여유가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종지(曹溪宗旨)를 크게 진작하고 있었으므로 곧장 그곳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리하여 몽여의 휘하에서 지혜가 크게 밝아졌다.' 하였다.

또 원감국사(圓鑑國師)의 <계족산정혜사 입원축수소 (鷄足山定慧社 入院祝壽疏)> 중에는 '청진국사(淸眞國師)께서 세상에 내려와 선풍(禪風)을 크게 떨치시고 충경시(沖鏡時)에 이르러서는 조사(祖師)의 도를 계승하여 크게 일으킴이라.' 하였으니, 이처럼 많은 비문에서 스님을 찬양함은 조계삼조(曹溪三祖)로서의 역할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또한, 여러 문헌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들 중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이규보가) 송광사에 주석 하시는 몽여선사에게 올리는 편지'를 살펴보면,

右啓 僕 曩 以塵雜細故 達願知識者 特一鉢浮屠耳

삼가 아뢰옵건대 제가 예전에 번뇌를 떨치지 못하여 해매던 중 큰스님에게 뵈오러 갔더니 큰스님께서는 특히 한 벌 발우로만 평생을 살아오신 본분납자이더이다.....

하였다.

청진국사에게 이렇게 공경을 다한 서간문을 보낸 이규보는 예종22년(1168)에 태어나서 고종 18년(1241)에 서거(逝去)한 분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중요한 요직(要職)을 두루 거쳤으며, 문장은 당대(當代) 제일이었다. 그러나 순탄치 못한 벼슬살이 탓인지 불교에 심취(深趣)하여 여러 고승대덕을 찾아 심요(心要)를 묻는 한편 교유(交遊)

하였다.

이러한 선생은 청진국사와 두터이 지냈으니, 한 때는 스님께서 이안 정홍진(而安 丁鴻進)이 그린 묵죽화(墨竹畵) 두 폭을 구하자 이규보를 초대하여 찬(贊)을 받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스님의 청렴함과 선풍이 중앙의 벼슬아치에게까지 미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사께서는 그 시대에 큰 선지식으로서 최씨 무신정권의 호국기원사찰(護國祈願寺刹)인 선원사(禪源社)에 주석(主席)하시어 국왕과 여러 대신들을 감화시켰으며, 조계산 수선사의 방장(方丈)과 정혜사의 주지(住持) 등을 지내면서 선풍(禪風)을 크게 떨쳤다. 또한 스승이신 진각국사의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을 보완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열적(列蹟)을 종합하여 보면 국사는 보조국사와 진각국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물려받은 복과 덕이 많은 행운아인 것만은 아니다.

앞의 비문에서 본 바와 같이 청진국사(淸眞國師)께서 후대 스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큰 선지식(善知識)들을 배출함을 미루어 볼 때 선지(禪旨) 또한 탁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조국사(普照國師)로부터 시작된 조계산 송광사의 수행 열풍은 진각국사(眞覺國師)에 이르러 더욱 빛을 발하였고 청진국사(淸眞國師)를 통해서 내적인 수행과 외적인 활동으로 더욱 안정된 기반을 갖추어 후대로 전승되었다.



축구운력

성경(性鏡) / 치문

축구는 경기인가, 운력인가?

불현듯 엉뚱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오늘 오후에는 가까운 면소재지에 있는 이읍의 운동장으로 축구운력 가기로 되어 있다.

사시 공양을 마치고 큰방에서 나와 축구운력 준비를 위해 지대방으로 들어가자니 저만치 후원 근처에는 다각스님들이 다각물을 비롯하여 축구화와 간단한 물품들을 차에 싣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나는 얼른 운력복으로 갈아입고 다각스님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다각스님들과 함께 축구운력에 필요한 물품들을 빠짐없이 차에 싣고 나서 차에 오르니 미리부터 앉아있던 반 스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 맞으며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한다.

내 뒤로 차에 오른 우리 반 반장 스님은 다각스님들에게 빠진 물품들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 후 우리 반 스님들의 인원을 점검한다. 차안의 따뜻한 히터 열기와 함께 우리들을 실은 대형 승합 차량은 곧장 이읍 운동장을 향해 출발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겨울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시방(十方)을 가득히 드리우고, 길가에 서있는 겨울 나무들도 어느샌가 마른 잎새 하나 남기지 않고 추위에 힘겨운 듯 움츠린 채로 서 있다. 겨울 나무 사이로 시야에 들어오는 추수가 끝난 들녘은 겨울의 서막을 예고하는 듯 적막하고 고요하기만 하다.

겨울의 정취에 취한 차 안에서 나는 문득 행자 때의 작은 다짐을 떠올린다.

사중의 모든 스님을 비롯하여 전체 대중들의 공양준비를 떠맡고 있는 후원소임으로 매일매일이 고된 행자 시절, 나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간상 소임을 보며 채공에서 올라온 반찬들을 찬그릇에 알맞게 배식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데, 채공 소임을 맡고 있는 행자도반이 올라와서는 “오늘 강원스님들이 축구 하러 밖에 나갔다”며 우리 행자들도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푸념 섞인 말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스님들도 축구를 하나?’ 하는 의아스러움과 함께 당혹감을 느꼈다. 그리고는 웬지 모를 실망감으로 스님들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행자 때의 검소하고 질박한 생각으로는 스님들이 축구한다는 것이 어딘지 출가한 스님들의 본분에 맞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마음 속으로 '수계 후에 스님이 되더라도 축구는 하지 않겠다. 혹 다른 스님들이 축구를 하더라도 그냥 옆에서 구경하며 지켜보기만 할 테다.'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계를 수지하고 강원 에 입방하여 막상 축구 운동을 해 보니 행자 때의 다짐은 까맣게 잊은 듯 열심히 뛰어 다니며 누구보다도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오늘도 축구 운동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들뜨고 신나는 기분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다가, 문득 행자 때의 다짐을 기억하고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출가한 스님들이 축구경기를 하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생각컨대 삭발염의한 모습으로 헤딩을 하고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는 일은 분명 위기에 어긋나는 일이며, 누가 보더라도 공부에 정진하는 스님들의 행동으로 보기에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만사 가운데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현실적인 입장으로 볼 때 필요한 것들이 더러 있다. 나는 축구 운동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앞서 먼저 우리 스님들의 대중생활을 조심스레 살펴보기로 했다.

강원 학인 스님들은 대중생활을

통해 함께 정진하며 스님으로서의 위와 자질을 익히며 수행인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다.

또한 대중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혼자서는 잘 되지 않던 일들도 대중스님들의 큰 힘에 힘입어 쉽게 해내게 되고, 자신의 의지로 잘 고쳐지지 않던 나쁜 습성도 대중스님들의 선의의 질책과 탁마에 힘입어 쉽게 고쳐지게 된다. 출가 수행인으로서 좋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음은 대중생활이 주는 큰 장점인 것이다.

반면, 대중생활에서 오는 문제점들도 어쩔 수 없이 생겨 나기 마련이어서, 가끔은 정신적인 피로와 짜증들이 겹치고 쌓여 심신이 함께 피곤해 질 때가 있다. 이러한 피로와 짜증들은 축구 운동을 통해 말끔히 씻어주고 나면 다시 새롭게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전 후반의 모든 경기가 끝나고 갖는 휴식시간에 다각스님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차담을 맛있게 먹노라면 격의없는 친밀감이 도반들 사이에 생겨나며 자연스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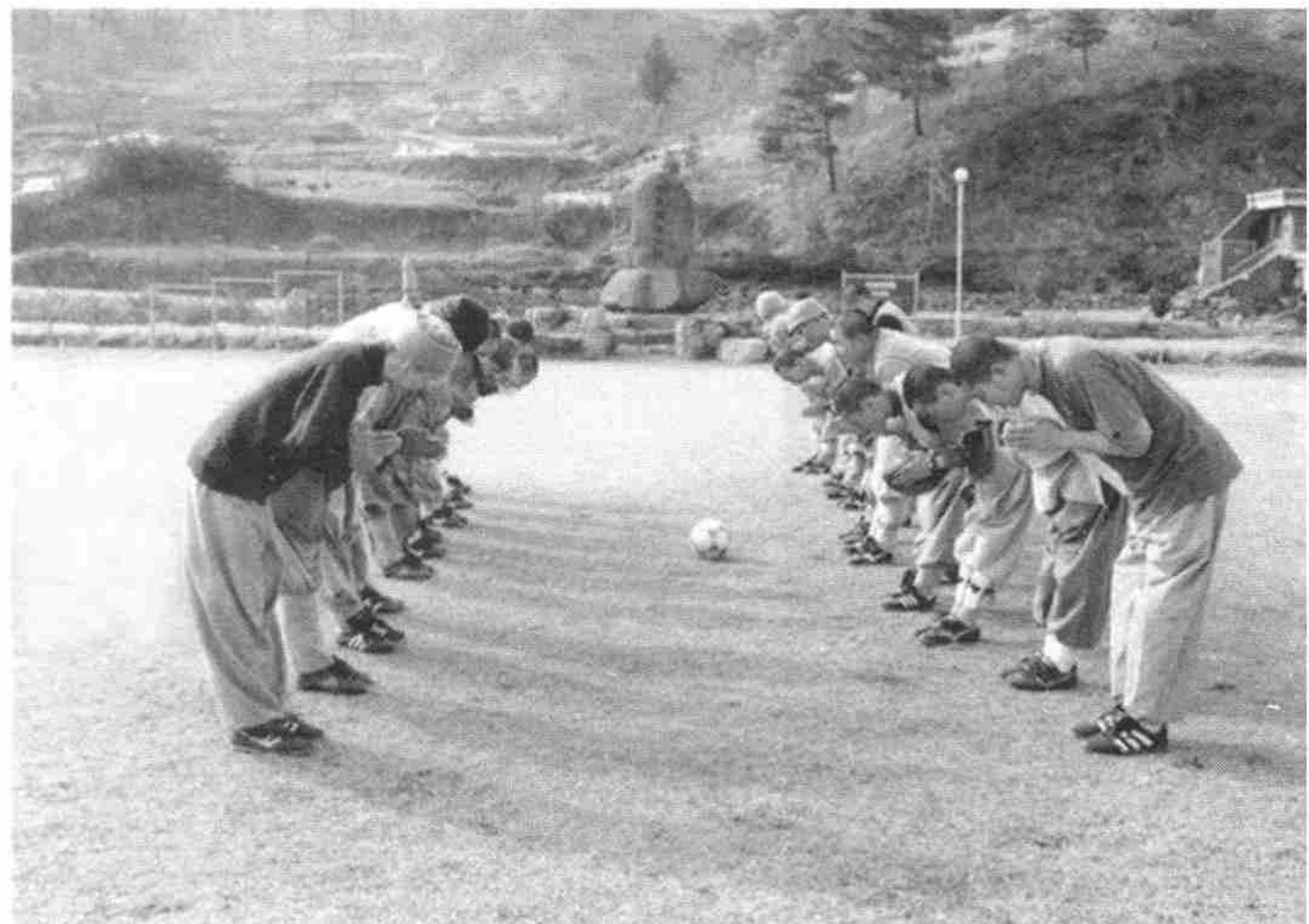
늘 뻑뻑하고 긴장된 큰방 생활로

인해 다소 소원해진 스님들간의 불편한 관계도 어느새 얼음이 녹듯 쉽게 풀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두터운 정이 생겨난다.

다만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자칫 경기 중에 승부욕에 빠져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 스님들끼리 서로 다치거나 부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는 점이다.

축구를 경기로 하지 않고 윤력이라 호칭한 것도 운동경기를 할 때에도 수행인의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경종의 뜻에서 일게다. 아무튼 이러한 대중화합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스님들에게 축구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스님들은 축구운력을 할 때에도 수행생활의 연장으로 받아들여 자칫 몸과 마음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POLICE

연성(練性) / 사미울의

나는 POLICE.

이놈은 아주 교활하고 약삭빠르며 때론 동정을 호소하는 척, 타협을 벌이는 척 하다 이내 상대를 굴복시키지.

나는 POLICE.

이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괴로워하며 시달려 왔는가? 처음엔 이놈에게 놀아나는지조차도 몰랐어. 항상 내 뒤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조그만 틈만 보였다 싶으면 이내 파고 들어와 나를 조종하려 들거든.

나는 POLICE.

이놈 때문에 시달린 수많은 날들. 이놈을 잡으러 몇 겹 생을 달려왔는지 몰라. 흘린 피와 눈물만 해도 수미산을 덮고도 족히 남을 거야.

나는 POLICE.

이놈은 너무나도 교활한 놈이야. 잡으려 하면 어느새 알고 나를 오히려 이용해 먹거든. 이놈은 내 생각을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든 일으키기만 하면 그걸 미끼로 먹고 살지. 착한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기쁜 마음, 두려운 마음. 죄다 미끼로 던져놓고 내가 걸려들기만 기다리는 거야.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매일 우리는 이놈에게 놀아난다구.

나는 빌었어.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기필코 잡아 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잡는 전문가관에 들어왔고, 이곳을 들어오려면 시험이 있더군. 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 받고 전선에 투입시키는 거지. 그 과정을 이곳에선 출가라고 해.

나는 POLICE.

이놈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특이한 게 있어. 용맹심을 불사르기 위해, 항상 그놈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머리를 뺨뺨 꺾고 혹시 그놈 눈에 떨까 싶어 회색 옷을 입고 다녀. 너무나도 급할 땐 날아가기도 해야겠기에 슈퍼맨처럼 갈색 망토를 걸치기도 하지.

나는 POLICE.

그놈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목적 달성을 하느냐? 그건 아냐. 그놈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놈에게 놀아나는 이가 대부분이야. 나중엔 놀아나는 줄도 몰라. 실패한 이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해. “사는 게 다 그렇지. 인간이 별 수 없어. 인생이란 게 말야, 살다보면 때론 이런 때도 있어.” 조심해야 해.

그놈에게 빨려들면 안돼.

나는 POLICE.

그놈을 잡기 위해선 말야,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해. 그야말로 행주좌와 어묵동정,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선 안돼.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일 때조차도. 심지어는 똥눌 때나 잠 잘 때도 잘 지키고 있어야 해. 아차 싶으면 늦은 거야.

나는 POLICE.

이놈은 무엇으로든 변해 접근해 온다구. 소리, 모양, 혼침, 음식, 우리의 여러 욕망. 아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탈바꿈해 다가오지. 거의 대부분 우리는 눈치조차도 채지 못해. 변화의 화신이야. 이놈을 잡는 수많은 방법을 적어놓은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지만 기록은 기록일 뿐이야. 우리가 직접 뛰어 야 하거든. 순간 순간 멈추지 않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해.

나는 POLICE.

하지만 나는 자신 있어. 이놈을 반드시 잡아 세상 모든 이에게 가르쳐 주겠어. 이놈을 잡으려면 지혜가 필요하지.



작은 아픔

고웅(古雄) / 치문

오늘아침 은사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드려보니 말씀 끝에 절 마당에 발목이 잠길 정도의 많은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다. 은사님이 절에 주석한 이래 처음 있는 사건이란다.

넓은 대웅전 앞마당을 하얗게 덮었을 눈밭을 상상하니. 마음은 한 달음에 달려가 멋지게 도량석이라도 돌고 싶은 심정 굴뚝같으나 그렇질 못하니 안타깝다. 또한 마음한 구석으로는 행자 때의 일화가 떠올라 그리 썩 기뻐할 만한 눈은 아니라는 생각도 함께 밀려온다.

내가 출가한 절은 국토의 남단 제주도에서도 가장 따뜻한 남쪽 서귀포시에 자리하고 있다. 연중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손가락으로 셀 만하니 눈을 직접 만져보기란 흔치 않다. 그것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좀 볼 수 있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눈이라면 한라산의 설경으로 만족해야만 했다고 하니, '따뜻한 남쪽나라' 라는 말이 실로 실감나는 곳이다.

따뜻한 남쪽나라. 그렇다. 제주도는 그것도 서귀포시를 포함한 남단은 굳이 이어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상향을 불러일으키는 이국의 정취를 보여주고 있다. 가로수는 열대수목이 주종이고, 밭은 물론 일반 집들 안마당까지 생업인 굴나무로 틈새가 없다. 겨울이라 하여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행자시절을 지냈다. 낭만적이었을 것이라 상상할지 모르나 과연 그랬을까. 누구나 마찬가지로였겠으나 나의 행

자시절 역시 현실은 전혀 그렇질 못했다. 행자가 절 문 밖을 마음대로 나가는 짐을 싸는 길뿐이라던가. 자유인으로 가는 길목엔 먼저 구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아픔이 있었다

그날도 눈이 왔었다. 따뜻한 남쪽나라라고 하지만 바닷바람이 몰아칠 때면 의외로 쌀쌀한 추위가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다. 이날 한없이 포근해야만 할 남쪽나라에 자그마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IMF의 영향으로 졸지에 거리로 내몰린 가장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대거 따뜻한 남쪽 나라로 밀려 들어오면서 생긴 사건이었다.

사시예불을 마치고 공양을 하고 있는데 신도회 몇 분이 시급한 소식이 있다며 후원으로 달려왔다. 그리곤 제주도 전역의 절 집에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절은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말인즉, IMF 행려족들이 돈이 떨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지자 우선 급한 데로 절 집마다 몰래 들어가 불단 위의 시주 돈을 집어가고 넣어놓은 빨래들을 훔쳐간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법당에서 자고 가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처방안은 당연히 행자 뚝으로 떨어졌다. 나는 신도회의 요구에 신속히 움직였다. 참고로 우리 절의 불전함은 신도회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는 그 동안 채운 듯 마는 듯하던 불전함을 묵직한 자물쇠로 보강하고, 불단 위의 보시는 보이는 즉시 불전함에 집어넣었다. 또 넣어놓은 빨래들은 채 마르기도 전에 모두 걷어들이는 것도

있지 않았다.

저녁예불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나의 임무에 충실했다. 만전의 방비를 한 탓인지 그날 우리 절에는 우려했던 행려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야밤에 법당에 몰래 들어와 자고 가는 사태만 방지하면 됐다. 나는 마무리를 위해 법당으로 올라갔다. 문고리들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불전함과 불단 위로 점검했다.

그런데 언제 놓고 갔는지 신중단 쪽 촛대 밑에 지폐 한 장이 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누군가 그새 다녀간 모양이다. 나는 지폐를 불전함에 넣기 위해 신중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곤 지폐를 빼내기 위해 촛대를 집어들었다. 천 원 짜리 지폐였다. 그때였다.

싸늘히 식어있던 금속성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신으로 파고드는 순간, 무언가가 강하게 어깨 죽지를 내려치는 것을 느꼈다. 멍하고 섬뜩한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나도 모르게 아! 하는 단발음이 새어나왔다.

때아니게 학창시절에 읽었던, 이제는 줄거리조차 가물가물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떠올랐다. 아! 장발장의 은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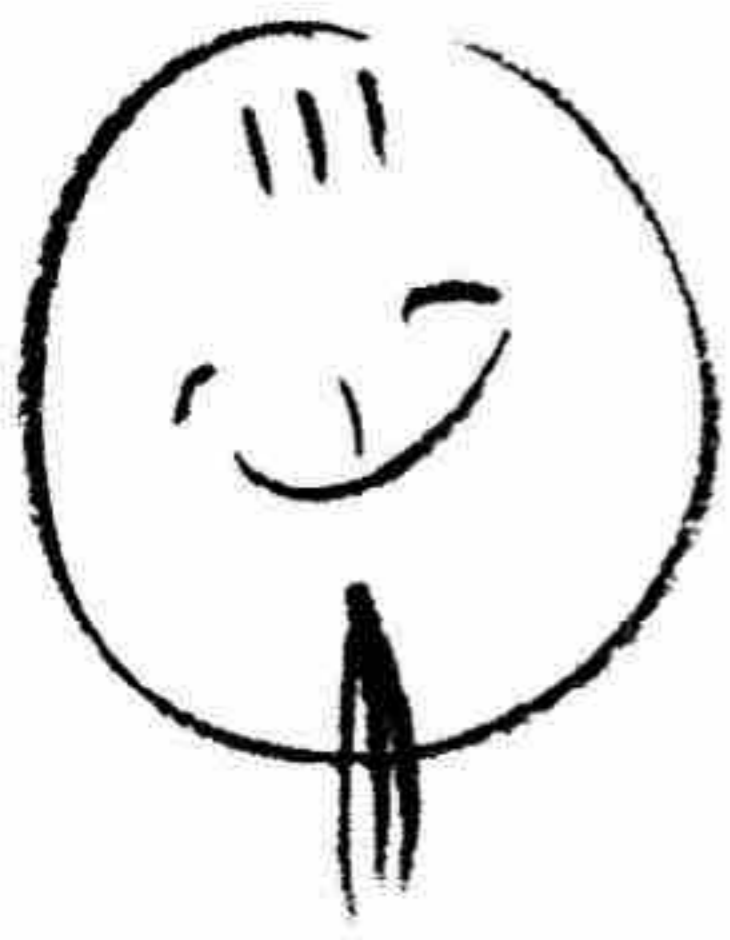
오늘 하루종일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더라 말인가. 정신을 차린 나는 굳게 걸어 잠갔던 법당 문을 활짝 열어제쳤다. 불전함의 자물쇠를 풀어 어둠속 눈발 저 멀리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온 몸을 던져 엎드렸다. “아- 부처님, 이 가엾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용서 하소서” 그날 그렇게 나는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

어찌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세상 속의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경제가 살아나 행려족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과보를 조금은 더는 듯한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정작 자신이 정신적 행려자임을 모른 채, 그 동안 절 집안의 길들여짐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되새겨본다. 정혜사 앞마당에도 눈이 내린다.

...눈발 저멀리
던져진 자물통.

‘
정작 우리 자신
정신적 행려자가
아닐는지...
,





사랑하는 그대에게

원교(圓皎) / 치문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그대도 알겠지만 엇그제 눈이 내렸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하얀색,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대를 처음 만난 건 한 3~4년 된 듯합니다. 그 이전엔 그대를 모르고 살았죠. 그대를 알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해지는 저녁 노을도 그대 닮아서 좋았고, 산등성이에 하얗게 출렁거리는 갈대의 손짓은 그대가 나를 부르는 듯 싶어서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日日是好日’이란 말을 실감할 정도로 날마다 좋고 날마다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를 만나긴 했지만 그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합니다. 말은 들었어요. 그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앞에 나열한 그대에 대한 화려한 수식어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도 그대가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그대를 만나려고 막무가내로 노력했습니다. 사

람들에게 길을 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대는 없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 다. 실망하지 않았습니 다. 다시 찾으 면 되니까요. 이번엔 좀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 그대가 있을 곳을 물었습니다. 흔쾌히 알려주더군요. 뭘 듯이 기뻐합니다. 힘들게 힘들 게 찾아갔습니 다. 정말 많이 힘들 었습니 다. 그대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좀 이상했습니 다. 내가 진정 으로 찾는 그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대인 듯 그렇게 거기에 있었 습니 다.

울고 싶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 다. 사실은 짧게 썼지만 그대를 찾으려고 많이많이 고생했거든요. 이젠 어떡하나? 그대를 찾을 길이 막 막합니다. 답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들 그대의 그림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대를 만날 자격이 없 나 해서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를 포기하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포기 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 다. 그런데 그때 내게 천사가 다가왔습니

다. 엇그제 내린 함박눈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있는 듯, 새하얀 천사가...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목메어 찾고 있는 그대가 있는 곳을 안다고, 어떻게 해야 그대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고. 27년간 쌓아온 것, 그리고 친구, 애인은 물론 부모 형제까지도. 조금 망설였지만 응낙했습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깎은 천사는 내게 길을 알려줬고 나는 그대를 찾아 지금 여행 중입니다. 나는 확신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행길의 마지막엔 그대가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대와 나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는 중간 길에 그대를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내 생애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곧 만나겠지만 만날 그날까지 잘 있으시오.

동석 법우님

도현(道現)/치문

한 지붕 아래 잠자고 한술밥 먹으며 함께 뛰놀던 이여.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우님을 굳이 '법우(法友)'라 부르는 것은 승속(僧俗)이 다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록 승속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추구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하나의 구도자(求道者)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중이라지요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어서, 공부에 치중하다보면 친구들과 멀어지고 또 친구들과 챙기다보면 공부에 소홀하다며 고민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건만, 어느새 시험일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살아가는 재미가 반감되겠죠. 고난 속에서 성취하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운이 좋아서 한 번 만에 합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행여나 실패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약으로 삼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 올 테니까요.

세월이 참으로 빨리도 지났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법우님이 먼저 아버님께 여쭙었지요.

“아버지, 저 출가할래요!” “출가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정색을 하며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시던 아버지. 아마도 먼 옛날 당신께서 꿈꾸었던 일이었기에 더더욱 조심스러웠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병교육을 마치던 날, 면회오신 부모님께 누이의 출가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인연이란 이리도 무서운 것이구나! 어려서부터 유난히 스님들을 잘 따랐던 우리 오남매. 삼촌도 스님이요 이모도 스님이니, 지나는 말이라도 “너 이 다음에 크면 내 상좌해라” 하던 말이 귀에 박혀 그리 되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면서 공부하겠다고 떠났던 제가 느닷없이 삭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모님께서 미리 짐작하고 계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이가 먼저 부처님을 향한 길 열어 놓았으니, 저에게는 잘 닦인 고속도로와도 같았지요. 엄동설한 모진 추위를 견디고 새 봄이 찾아오던 날, 출가 본사인 쌍계사에 ‘보살계 수계 산림’이 있어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사중의 온갖 시중 드느라 정신없는 틈에 어떻게 가시는지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렇게 집에 돌아오신 아버님이 술도 끊고 아침저녁으로 ‘천수일편(千手一片)’을 모신다는 말을 듣고는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솟구치더군요.

아! 그래서 ‘一子出家 九族生天’ 이란 말이 나왔구나! 참으로 환희심이 나더이다. 그리고 예순되는 생신 날에 보내신 한 통의 편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어느새 늙어버렸으니... 부디 공부 열심히 해서 중생제도에 힘쓰라’ 하시던 아버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수행해 나가는 힘의 근원입니다. 모두들 부모형제 다 버리고 출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부모형제 모두 등에 지고 출가했습니다. 출가 수행자의 길만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었고, 크나큰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이 들 때면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가족들. 열심히 응원해주는 나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로지 부처님께 기도하고, 참회하며 정진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을 법우님께 떠넘기고 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결혼식 치르고 나서 가족사진을 보니 분명 오남매였는데 셋 밖에 안 남아 허전하더라란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리네요. 내가 못 다한 몫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혹시라도 이런 부탁이 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모쪼록 건강하시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래도록 간직하시길...

동짓달 초하룻날에 도현 합장

사랑하는 어머니께

범하(梵河) / 치문

... 1999년 10월 31일 일요일, 비오는 저녁 7시7분. 송광사 정혜사(큰방).
며칠 전 점심 공양 후 탑전에 간 적이 있었다. 포행도 하고 특히 밖의 날씨의 유혹에
그리고, 차도 한 잔 얻어 마실겸 해서였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며 걸어 어느새 탑전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바라본 조계산은 단청불사가 한창이었다. 문득 고향에 계신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중학교 다닐 때 TV에서 나오는 내장산 단풍의 절경을 보시면서 우리 형제를 키우느라 여태껏
단풍놀이 한번 못 가보셨다는 어머니 말씀에 “제가 커서 나중에 단풍구경으로 전국 일주
시켜드릴게요” 하고 대답했던 사연이 뇌리를 스쳐갔다. 애써 생각을 떨치며 다각실로 들어서니
여럿이 둘러앉아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차를 한 잔 얻어 마시고 있으니 사진을 한 장 찍었으면 하고
다들 입을 모았다. 따라 나섰지만 유독 사진을 찍는 데서 빠졌다. 출가당시 나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직전까지 추억이 담긴 앨범의 사진을 한 장도 남김없이 정리하고 왔다. 그것은 내가 없는 나의
공간에서 누군가 나를 그리워하며 그 추억의 앨범을 넘기며 가슴아파 눈물 흘릴까 보아서였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진을 찍고 그것을 또 모으고 정리한다고 생각하니
그리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 홀연히 생각해보니 집 떠나 출가한 지 어언 2년.
혹시나 고향집 석양에 출가한 막내아들을 그리며
한숨겨워 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코끝이 시큰해짐을 느낀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가슴에 상처를 내고 떠나온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종종 편찮으시진 않은 지 또는 불효
자식 생각에 주름살이 늘어가지는 않으신 지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의 연세를 문득 헤아리니 올해
로 지천명의 연세를 넘기셨습니다. 건강 하신지요. 저는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극구 만류하셨지요. 하지만 제 뜻은 이미
오래 전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게 매달리시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제 의지대로 그렇
게도 무심히 모자의 연을 끊었죠. 영문도 모른 채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왜 그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고 또 스스로 아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와는 달리 부모님과 어른들께 순종하며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믿음에 부응
하려고 노력하는 자랑스런 당신의 아들이었기에, 출가하려는 자식을 용납하시기에는 그 무언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심정을 제가 어찌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효도와 자식의 도리는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어진 처를 얻고 대를 이을 손자를 안겨드리며 또 지극정성 봉양함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나 출가한 제가 보는 모자간의 연은 수없이 많은 전생의 인연을 쌓아오다가 비로소 금생에 모자의 중연을 맺었으니, 진정한 효의 관점은 그 큰 인연을 반듯하게 이끌어 번뇌,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어찌 태어나고 길러주신 은혜가 없었으면 어찌 바르게 자라났겠습니까? 그 은혜란 무겁고 깊어서 세간의 효를 다한다 해도 갚기엔 힘들 것입니다. 어머니, 불교의 출가는 불효를 행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님을 이해해주세요.

한 집에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냥 출가만 한다고 해서 구족을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출가 후에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며 널리 세상에 이로움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앞으로 자식의 수행과 공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며 그리워하셨던 모든 생각을 이제는 떨치십시오.

이 아들의 출가는 온 세상의 중생들을 모두 이익케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번뇌 그리고 집착을 끊어버리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일깨워주어 평안하게 하려는 원대한 목적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만 슬퍼하시고 부디 그 마음을 바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목적은 성불하는 것, 즉 부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을 보내니, 어머니께서는 이 책을 보시고 올바른 이해심을 내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다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간에서의 관점으로 보는 효라던가 자식의 도리는 진정한 것이 아님을 기필코 알아 주셔서, 자식의 출가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부디 아들로서의 기억을 지우시고 불법을 갈고 닦는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남을 항상 바랄 뿐 그밖의 생각은 잊어주세요.

사랑하기에 보고싶어하지만, 떨어져 있는 지금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만남을 기약하고 준비함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럼 몸 건강히 편안하시길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베풀며 삼시다

정산(定山) / 사교

얼마 전부터 '송광사 강원'과 '송광사 순천 포교당 대승사 청년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동참하게 됐다.

전에는 달마다 얼마 정도의 성의금만 내었을 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소임자인 아랫반 스님과 우연히 얘기하던 중 뜻하지 않게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 스님은 자신이 맡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서, 전에 어린이 범죄와 현재 청소년 범죄를 맡고 있는 경험이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번 같이 가보자고 한 것이 발단이였다.

난 그저 같이 돌아보고 그 스님의 고칠 점을 지적해 주고 아이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다가서야 할지 조언만 해주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한 파트를 맡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가정은 총 9가구이다. 그 중 세 집씩 묶어서 스님 세 분과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랫반 소임자 스님 혼자서 맡았었는데, 일일이 각 가정마다 신경을 쓰는 일이 힘에 부쳐서 다른 두 분 스님의 지원을 더 받게 된 것이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기금은 송광사 학인 스님들이 매달 성의껏 모은 약간의 돈과 몇몇 후원자들이 지원하는 후원금을 합친 월 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충당된다. 이 금액으로 매달 1가구당 5만원 정도의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그 달에 생일이 있는 아이들과 하루를 함께 하며 잊혀진 가정의 따뜻함을 대신해 주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10만원 이내의 생활도구 등을 구입해주고 정초와 추석에는 총100만원을 특별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최소한의 지원이고 이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한 예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교복부터 차비, 등록금(육성회비), 기타 준비물 등이 상당

한 부담이 되고 있고, 아직 까지도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

한편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우리들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면 반가워하기 보다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는 아이도 있다. '스님이라서 어려워하는걸까?' 어쨌든 우리에게서 겁먹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일 중의 하나이다. 때로는 스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공기놀이도 같이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알아와서 대화해 보기도 하는 등 편안한 말 상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님의 위의(威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 보람을 느낀다.

직접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소임자가 잘 하고 있겠지 하고 방관을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 소임자만의 일이 아니란 걸 느꼈다. 그래서 일단 맡게 되었으니 열심히 잘해보려고 한다.

우리들이 출가한 목적은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여 말하면 하화중생이 곧 상구보리이다. 자비의 실천으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남녀노소와 승속(僧俗)을 떠나서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눔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불교의 육바라밀 수행 중 보시가 첫 번째가 되지 않나 싶다.

모든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한다. 불성이 있으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자비심이 존재한다. 다만 자기 자신의 자비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베푸는 것에 대한 어색함, 쑥스러움 때문에 베풀고 싶어도 막상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남을 도와 줄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다. 양로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고아원, 노숙자 등등 얼마든지 찾으면 우리의 손길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곧 이것이 보살행이다.

우리들의 자비심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작은 것이 모여서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 우리 모두 새 천년의 세상은 자비심이 가득 찬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많은 후원자가 생겨서 아이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고 욕심을 내 본다.

~

마음으로 다가서기

능원(能圓) / 사집

‘소년소녀 가장 돕기’ 소임을 5개월 전에 맡게 되었다. 처음 나가는 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아는 도반 스님들에게 이것저것 물어 보았지만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장마도 끝난 8월 중순이었는데 비가 무척 많이 내렸다. 송광사 일주문 앞에서 비를 우산으로 겨우 막아내길 30분. 차가 빗속을 가르며 나타났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괜찮다고 말하며 차에 올라섰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순천 불교청

년회원에게 찾아가는 집 아이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두고 가출한 집이라고 했다.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었다. 시간이 흘러, 도착했다는 말에 준비한 물건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와 아이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방으로 들어오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쓰레기가 흩어져 있고 벽지나 설거지도 엉망이었다. 특히 아이의 무표정한 얼굴은 나를 더 움츠리게 했다. 애써 생각했던 말들이 더 이상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도무지 대답이 없었다. 무표정한 얼굴과 함께.

나머지 두 집을 둘러보았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다쳐서 어머니는 가출하고, 정말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 소임을 맡기 전, 나는 내 공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망설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왜 불교를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있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동안의 나의 생각을 조금 수정했다. 이 책임을 맡은 이상 공부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고민도 해 보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다. 이번에는 송광사에 기도하러 오신 보살님과 스님 두 분이 함께 가게 되었다. 그날은 완전히 아이들의 수준에 나를 맞추었다. 엉뚱한 말을 하고 가가대소하며 온갖 원맨쇼를 다했다. 그리고 나서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외출해서 시간을 보냈다. 좀더 빨리 친해지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궁리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헤어질 때 선물로 롤러브레이드와 운동화를 사주었다. 그날 활동을 끝내고 돌아와서, 물질적으로 다가서는 방법이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러 주위 분들한테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말과 함께 매서운 질책을 받았다.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생각과 여러 주위 분들의 조언 덕분에 진실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기로 마음을 먹었다.

방학 때, 여수 석천사에 계신 진옥 스님을 찾아 보니 좋은 말씀과 함께 문수 복지관의 복지사를 소개시켜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 자원봉사자도 5명으로 늘었고 스님 두 분도 함께 하게 되었다. 이번 달에 나갔을 때는 조금씩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비록 작은 변

화이지만 나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었다.

긴 터널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젠 수줍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비록 짧은 5개월의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마음이 일어나고 행해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수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과 독단을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한다는 공명심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반조의 가르침을 준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다.

또 한달이 지나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들도 나를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오리라는 믿음을.....

나는 행복한 스님

보월(寶月) / 치문

살아있음은 연기이다. 연기는 곧 인연이며, 인연은 소중한 아름다운 것이다. 살면서 많은 나날들, 남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 유형 무형의 도움이 없다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 힘들다는 생각으로 보내기 쉬운 치문반 시절 난 도반들로부터 참으로 소중한 도움을 받았다. 서로의 타성에 젖기 쉬운 단체생활에서 스스로없이 보살행을 행하는 도반과 좋은 일 하고도 상을 드러내지 않는 무주상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출가하길 잘했

다는 환희심을 가졌다. 어떻게 삶을 회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주는 도반들이 있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늘 기쁜 마음뿐이다.

내가 우연히 한국심장재단에서 하는 심장병 환자 돕기를 도반들에게 제의할 때만 해도 큰 기대보다도 빨리 대상자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만 앞서 말을 먼저 꺼내놓고, 바로 후회를 했었다. 한 달에 얼마 안되는 보시(순천에서 서울 갈 차비정도)로 '소년소녀 가장 돕기'와 '북한 동포 돕기'에 나눠 내고 나면 유일하게 철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믿는 우유마저 중단하는 스님들이 있기에 괜히 말을 꺼내서 도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나 하는 걱정과 착한 일한다고 모양내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순간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이자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내 제의가 끝나자마자 당연한듯 반갑게 도움을 주겠다는 도반스님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너무 삭막하게 살지는 않았을까?하는 생각과 앞으로 내 승려 생활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남몰래 관물함에 들어 있는 '심장병'이라고 쓰여진 봉투, 송광사에 방문한 대만 스님들 시중 들고 난 후 감사의 뜻으로 받은 달러(\$), 은사스님으로부터의 받은 용돈들. 또 어떤 스님은 하루종일 공양간에서 불때고 설거지하고 받은 보시금을 선뜻 내놓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 가진 것 하나 없는 스님들이 약간의 용돈을 모아 보시했을 때, 도움을 받을 환자보다 오히려 내가 더 기뻐다.

이런 인연공덕으로 한 어린이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며, 다른 환자 한 분을 선정하여 수술에 들어갔다. 얼마 후 봄이 되면 마음껏 봄을 누릴 두 사람을 생각하면 겨울의 추위쯤은 아무렇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대단하지는 않다. 그리고 출가 수행자가 남들 돕는 것 또한 대단치 않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내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아주 크고 소중한다.

오늘도 뻑뻑한 하루 일정에 지쳐 자고있는 도반스님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들도 나를 보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자문해본다.

이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몸 편안히 안녕히 계시는지요.

저는 스님들께서 이번에 심장수술을 해주시기로 한 최지수의 엄마입니다.

처음 지수의 병을 알았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힘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께서 수술비 지원을 하셨다는 심장재단에 계신 분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전 너무나 큰 은혜에 기쁨으로 온 세상을 다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잊지 않고 저희처럼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수술하고 건강 회복하여 찾아 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999년 9월 28일 아이엄마 올림

심장소식(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소식지 - 겨울호)

송광사 치문반 2명 후원

송광사 보월스님은 본명이 김○○로서 스님이 되기 전에 우리 재단 환자를 4명 후원하였으며 현재는 스님이 되어 송광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 보월스님을 통해 심장재단을 알게 된 치문반 스님들은 심장병 환자들을 돕기로 뜻을 모아 지난 9월 15일과 11월 24일에 각각 150만원씩을 기탁하였다.

대만 불광사 불학원

편집부

●●●

송광사 강원과 대만 불광사 불학원은 불기 2542년 11월 처음 자매결연을 맺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한국과 대만 불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서로 탁마하며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상호방문을 통한 학술교류에 중점을 두고 교류의 폭을 넓혀 왔다.

●●●

▼ 해인사 장경각에서



금번 송광사 강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방한에는, 불광사 불학원에서 방장이신 심정화상과 복지담당 해룡화상을 비롯하여, 강주·강사·시자 등 모두 13명이 내한했다.

방한일정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방한단은 송광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을 견학하고 한국 불교의 총림체제를 일람하는 등, 한국 불교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방한에서는 ▲선 중심의 한국불교와 교·율 중심인 대만불교의 특성 이해 및 보완 ▲다양한 포교방안의 활성화 ▲율원간의 교류확대를 통한 수계 교환 등이 현실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방한단은 선 중심의 한국 불교와 교·율 중심인 대만 불교의 특성을 이해 보완하기 위해, 송광사 선원인 수선사를 참관하여 수행법, 일과, 안거 방법 등을 습득하는 한편, 참선을 실제로 체험하는 등, 우리의 선불교를 대만불교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대만 불교는 역사가 짧고 문맹자가 많다는 특수성 때문에 교리교육 등 교학에 중점을 두고, 일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수행에 들어가는 과정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불학원측은 이번 방한기간 중 우리의 선(禪)불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교학 위주의 불교에서 선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만 불교는 출가의 목적을 처음부터 포교에 두는 경우가 많아 포교활동이 우리보다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다 많은 중생을 불법으로 인도하고 법의 참뜻을 이해토록 하기 위해 포교에 비중을 두는 대만불교의 방침이 적극적 포교방안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광사의 경우도 자국내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지원을 개설하



▲ 송광사 국사전 참배하는 모습

▼ 대웅보전 참배



는 등 해외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TV 등 전파매체를 통한 다양한 포교활동은 한국불교에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

또 이번 방한에서, 사미계 단일계단 수계산림을 참관한 방한단에게 송광사 율원은 대만의 삼단대계를 견학할 뜻을 밝혔고, 이에 불학원측이 수락해 양국 불교의 수계산림을 직접 비교해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송광사 강원은 삼단대계(53일간 사미계, 비구계, 보살계를 차례로 받는 행사) 중 비구계를 수지(受持)할 학인 대표 3인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송광사 강원과 불광사 불학원은 이번 교류범위의 확대를 계기로, 보다 나은 교리적 체계의 마련과 실천적 계행의 바탕을 이룩함으로써, 청정한 수행과 화합하는 승가상을 확고히 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했다.

또 양국불교의 국제화와 현대화 등 21세기 불교의 모델적 좌표를 제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양 사찰의 관계자들은 열매가 맺으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듯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원력

심정화상

이번에 우리를 초청해주신 송광사 여러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성 방장스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오며 스님의 정진에 대한 열망과 청정한 계율의 삶에 한없는 존경심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원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불광사 방한단은 승보종찰인 송광사를 비롯 한국의 전통사찰을 참배하며 총림의 운영과 전통, 선원과 강원(行院)의 수행체계와 실수(實修)방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울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송광사 스님들의 많은 도움 바랍니다.

출가사문이라면 무엇보다도 안으로는 계율을 준수하고 밖으로는 위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가의 존립자체가 경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율을 준수한다는 것은 올바른 불법의 이치를 깨닫고 승려의 가치와 위의를 익혀 승단을 화합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계율의 준수는 중생교화를 원활하게 하여 불법을 융성하게 함으로써 뛰어난 인재 양성과 함께 불법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청정과 화합이 공존하는 사찰은 많은 신도들의 환희심을 일으켜 불법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장스님의 위없는 원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계율 준수의 바탕 위에서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보리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실현키 위한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불조의 혜명을 잇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발심을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생교화는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는 마치 급류와 같아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의 진리로 급류 속에 휩쓸려 있는 중생들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로써 고해를 벗어나 자유자재해 질 수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상호간에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중국불교가 한국불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출가자들이 불교학을 연구하는데 기본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팔만대장경이 좋은 일례입니다. 그리고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나 보조선의 <수심결>은 필수교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신라 왕자 신분으로 출가해 생불이 되신 김교각스님은 오랜 세월을 두고 민중 속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의 흐름 속에 두 나라 불교는 많은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젠 한국불교와 대만불교가 하나되어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 탁마하여 전 인류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시발(始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송광사는 세계 불교사에서 유례(類例)가 없는 16국사를 배출한 대표적 승보사찰입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가람과 교류를 맺고 있는 우리 방한단 또한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우리를 열렬히 환영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 불교, 배우러 왔습니다

■ ■
중국 불교,
10박 11일간
송광사 수행체험
■ ■

중국불교의 '한국 불교 수행 체험단'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송광사를 내방, 사자루에서 송광사 강원생들과 함께 10박 11일간 생활하며 한국불교를 익혔다.

문화혁명으로 단절되었던 중국불교가 종교자유화 이후 처음 파견한 '한국 불교 수행 체험단'은 '한국 불교 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후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방장, 조실 등을 포함해 주지급 이상의 중진 스님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송광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예불은 물론 발우공양, 선수행 등을

체험하고 강원 교과과정을 견습하였으며, 중국에서 소멸된 전통 불교의식을 새롭게 습득하는 한편, 화엄사·쌍계사·원각사·쌍봉사 등을 방문, 전통이 살아 있는 한국 불교의 현장도 견학했다.

특히 이들은 송광사에서 수행 체험을 계기로, 그동안 중국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자국내나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있어 탁상공론이나 외형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인식하고, 한국불교 특히 송광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수행일정을 마치고 가진 강원 학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피력됐다.

간담회에서 드러난 중국불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 불맥이 끊어졌다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종교활동과 출가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40~60대 중진스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올바른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 젊은 스님의 양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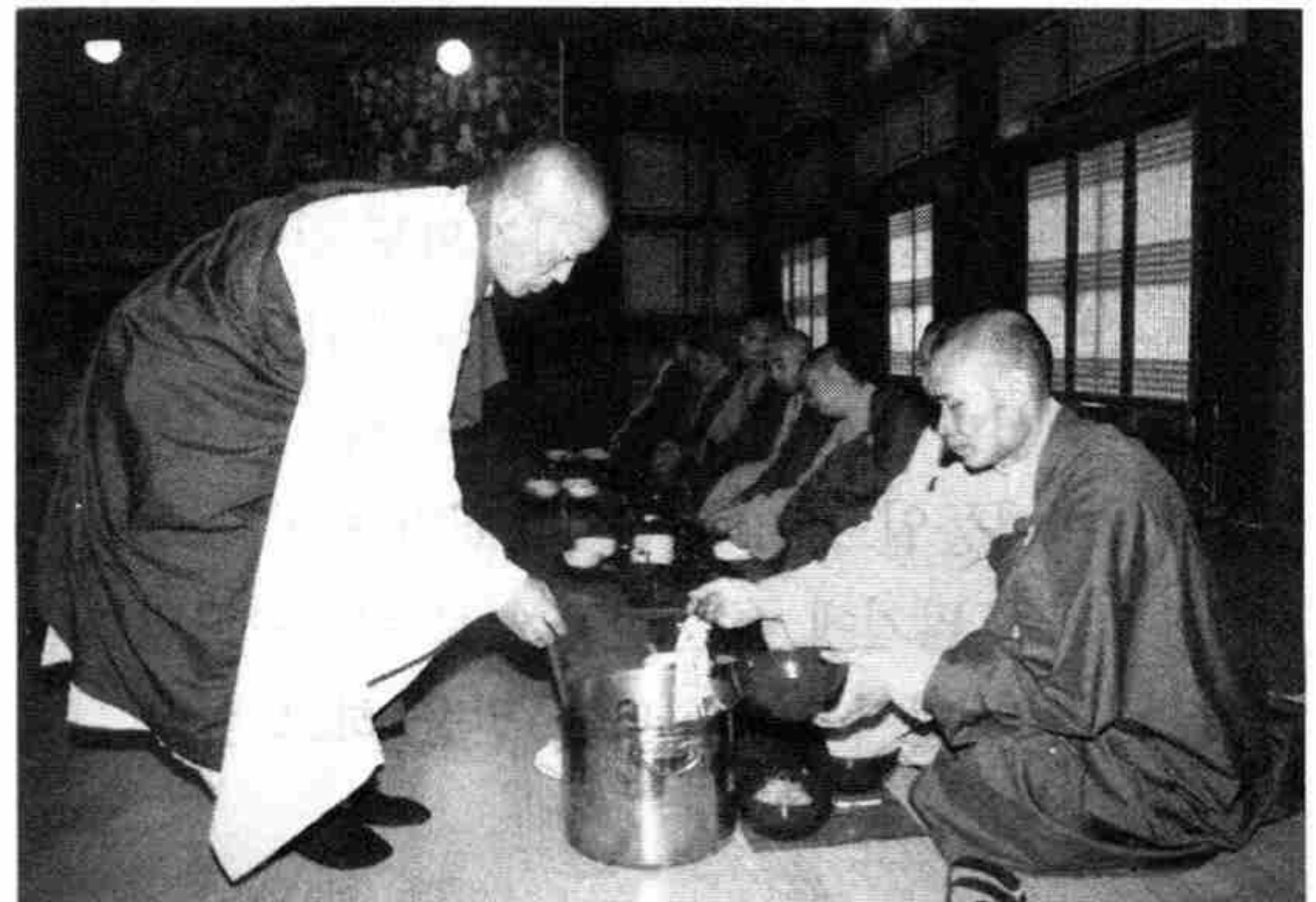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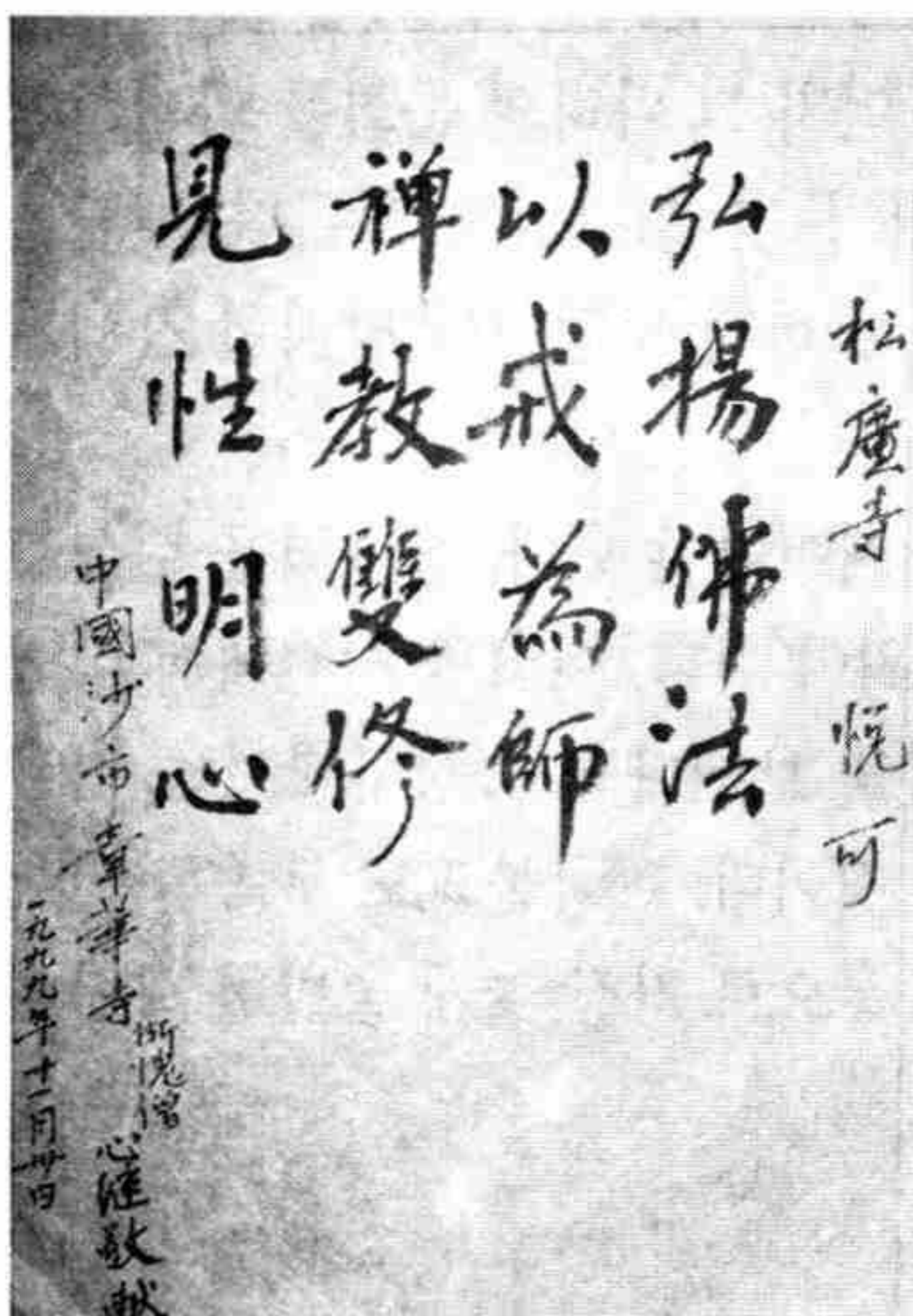
현재 신앙활동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스님들의 정진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승가교육은 3단계 과정(초급 2년, 중급 3년, 고급 4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경불학원이 가장 큰 강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내방단에는 현재 불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들도 참석했다.

재가자를 위해서는 연령, 사회적 직위 등 각자 조건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수행은 임제종의 맥을 이은 선종을 중심으로 정토종의 수행을 겸하고 있다.

중국 불교의 가장 당면문제는 사찰의 복원이다. 문화혁명 때 1천년 이상 된 사찰들이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복원이 시급한 것이다. 아울러 황폐화된 신심, 불심을 되살리는 것도 중국불교로서는 절실한 과제다.

이와 같이 중국불교의 현재는 물질적 결핍과 더불어 정신적 피폐라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참선 등 수행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대중이 요구하는 양로원이나 고아원 시설 등 사회복지적인 활동에도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론이 절실하다.

이런 면에 견주어 볼 때 이번 체험단은 송광사에서 수행과정을 매우 진지한 마음으로 일관했다. 송광사와 같은 수행체제가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환경과 안정된 기반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체험단 단장이 밝히는 "궁극에는 송광사와 같이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는 수행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송광사와의 교류가 확대돼 학인이나 연구생들이 많이 오갔으면 한다. 중국불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송광사 강원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이다." 라는 말에서도 이 같은 요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 중국불교에 바란다

21세기,
불교 이외의
대안은
없다.

지운(智雲) / 송광사 강주

고려말엽부터 시작된 한국불교의 강원설립목적은 선교겸수(禪教兼修)였다. 전통의 한국불교 강원은 70년대 이후 사회에 대학교육을 요구하는 풍토가 조성됨에 따라 강당도 아니고 대학도 아닌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학문 위주의 교육은 승려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신심과 발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불교학은 불자가 아닌 다른 종교인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원이 일반대학의 영향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94년 이후 과거의 선교겸수의 전통은 되살아나고 있다.

송광사 강원은 기초수행으로 자비관과 수식관을 실시하고 선사들의 어록과 법문을 중심으로 참구하는 참선수행을 겸하고 있으며 실천수행의 모습으로 발우공양, 정기적 기도, 참회의식 등을 실현하고 있다. 송광사 강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상에서 그대로 현현(顯現)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생활화하고 있다.

중국불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불교를 학문적으로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신심과 발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육이 되지 않고는 승려교육은 실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찰의 외형적 복원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승려교육과 함께 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참다운 종교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적 수행적 계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 최고의 사건은 1,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불교가 유럽에 전해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의 시대는 영적인 시대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한 것이 선(禪)이다. 중국 역사에 있어 가장 찬란했던 당·송 시대 문화는 불교, 그 중에서도 선불교를 바탕으로 일어났다. 선은 한 시대 한 국가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 어떤 민족과도 통할 수 있기에 오늘날은 물론 미래의 시대에도 절실하다. 따라서 무궁무진한 조사어록이나 선어집 등을 현대적으로 재

구성하여 현대인에 맞는 선수행을 개발하는 데에 중국불교는 앞장서야 한다. 한국 역시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보조스님의 수심결과 같은 선어록 등을 현대인에게 맞게끔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예전에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중국문화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불교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나라의 문화를 파괴시키는데, 중국은 여러 민족이 합쳐 이루어진 국가이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나라가 몇 조각날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불교가 하는 일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다고 한다. 다시 한번 토인비의 말처럼 21세기는 불교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중국불교는 잠자는 사자와도 같다. 이제 찬란했던 과거와 같은 위상으로 다시 깨어나야 한다. 잠재력을 현실로 드러내야 한다. 전통은 다시 복원되고 열린 마음으로 해외불교를 받아들여 꽃피워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체험단이 송광사를 내방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만일 중국에서 유학생을 보낸다면 송광사에서는 적극 받아들일 것이다.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다. 한국불교도 부족한 면이 너무 많기에 좋은 점을 서로 교류한다면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겠나 생각한다. 끝으로 가장 늦게 출발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도달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의 특강을 듣고서

도정(度鼎) / 사집

“

청정승가에 몸담은 것 자체가 큰 보람입니다.
강원생활이란 내면의 세계를 길들이는 것,
바로 중노릇을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되는 도를 얻기 위한
중노릇을 즐겨보십시오. 가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도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

2000년 1월 2일.

불교계의 큰 별이 또하나 사라졌다. 한 집안에서 41명이 출가했다는 진기록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던 ‘동곡 일타 대종사’께서 가신지 35일. 그분이 정말 가셨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스님을 따르던 재가자, 출가자들이 송광사에 모여 5재(齋)를 지냈다. 약관의 나이에 첫 결계를 나셨던 수행도량, 그리고 처음으로 보살계를 설하셨던 전법도량이기에 더더욱 큰스님의 행적을 떠오르게 하는 시간이었다.

마침 문도 대표로 참석한 혜국 스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청하였다.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가 자란다 했던가. 일타 스님께 득도(得度)하고 성철 큰스님, 구산 큰스님 등 내노라하는 여러 선지식께 참구한 지 40여 년. 이제는 바다 위에 우뚝 솟은 한라산자락에 남국 선원을 열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원장 스님은 자신있는 어조로 후학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셨다.

이틀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 실참(實參)이 부족하여 다 공부자리로 돌릴 수는 없었다.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출가한 보람’을 말씀하신 부분일 것이다.

“세상은 투쟁의 공간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봐야 누군가의 희생을 밟지 않고는 못삽니다. 그러한 윤회를 벗어나겠다고, 투쟁 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발심(發心)한 이를 난 ‘수행승’이라고 봐요. 정말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윤회의 고통,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 청정승가에 몸담은 것에 큰 보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도(道)란 완전무결하게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기에 중노릇만 잘하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글을 얼마나 거뒀느냐? 도반(道伴)의 나쁜 점을 얼마나 내 것으로 승화시켜 받아들였는가? 반성하면서 하루하루 중노릇에 보람을 느끼고 닦아나가는 사람은 사 오십에 도가 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듣고만 있어도 바로 도가 트일 것 같은 환희심나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쉬워 보이는 도인이 왜 안 나오는 걸까? 선원장 스님은 말씀하셨다.

“요즘 도인(道人)이 안나온다고들 하는데 왜 도인이 없습니까? 서옹스님, 송담스님, 진제스님 등 알려진 분들만 너댓분이나 됩니다. 문제는 도란 것을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생각해 버리는 풍토가 문제입니다.

도(道)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익어가는 것인데, 쉬운 것, 재미있는 것들에 익어져서 안되는 걸 되게끔 하는 투과력(透過力)을 잃어버렸어요.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되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편해져서 타성에 젖다보니 어느 날 한번에 깨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도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되는 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중노릇을 즐겨보십시오. 가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도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대중과 함께 침식을 하면서 매일같이 예불드리고, 늘 계율을 생각하신다는 선원장 스님께서는 한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큰 것만을 도(道)로 아는 요즘 스님들의 모습을 경계하시며, 매일 매일 중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속에 도로 나가는 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특히 요즘도 예전과 같은 수행체험을 하시냐는 질문에는 불사와 여러 소임 때문에 예전 같은 환희심나는 공부는 되지않는다는 진솔한 고백을 하시며, 이제 스스로에게 기약한 빛 갬음의 기간도 끝나가니 다시 올곧게 수행에 전력하여 자신있게 체험담을 들려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나에게는 그때 스님의 공부자리를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일이 남은 것 같다.

우리 학인들에게 최소한의 수행으로 108배를 거르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합장하는 스님의 손에는 연비로 공양 올린 마디마디마다 후학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왔다.

아직은 서툰기만 한 승려생활과 늦은 출가로 다급해하는 마음에 발원과 실수를 거듭하는 나를 위해서인

듯이 선원장 스님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젊어서 헛노력 안한 사람은 공부 맛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참절을 하기 위해서 만 번의 헛절이 필요합니다. 익지 않은 것은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강원생활을 한다는 게 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노릇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중노릇이란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아 내가 중이구나!’ 하는 생각에 빙긋이 미소가 나오고, 일평생 도를 깨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눈감는 순간 부처님의 세계에 일념으로 젖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걸로 ‘내 삶은 완전히 성공한 거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인 스님 여러분도 현재의 헛절과 헛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미반부터 시작한 강원 생활은 이제 3년여를 지나고 있다. 때론 신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불드리고 간경하면서, 늦게나마 부처님 법 만나 출가 인연을 맺게 됨을 환희 하다가 몸이라도 아프고 석사(釋辭)가 막힐 때면 짜증과 퇴굴심으로 하루하루를 도반들에게 짐이 되었던 시간도 많았다.

한마음 지속하기 힘든 줄은 알지만 잦은 마음의 변화에 힘들어 하고 있을 때, 40여년을 수행으로 일관하신 선원장스님의 특강은 나를 포함한 강원대중에 신심과 원력을 일으키기에 너무나 좋은 인연이었다.

영원한 자유인, 페터 노이야르

덕인(德印) / 치문



“이히 레베 오네보눔, 오네 겔트, 오네 프라우” (나는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삽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 유럽의 중심부 독일 쾰른에서 누더기 망토를 걸치고 자유로운 하늘과 땅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붓다처럼 ‘아나카리카’(집 없는 자)로 사는 성자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페터 노이야르. 한국을 방문한 그가 송광사와 인연이 닿아 좌담회를 가졌다.

남루하지만 깨끗이 기워 입은 망토는 잔손질한 누비처럼 친근하게 보였다. 단정하게 삭발한 머리, 깨끗한 얼굴은 맑은 기운이 넘치고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거지성자’라는 책을 통해 소개된 그의 삶은 이곳 한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동행한 KBS 취재진이 그의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다.

“저에 대한 관심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반영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도한 바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서양의 문명이나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선생의 무소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때로는 부랑자 취급을 하고 그의 생활방식을 원시시대의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내가 루소처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오해하고 원시생활을 동경하는 이상주의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소유를 버린 수행자이지,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원시사회로 돌아가 동물처럼 산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카비르 는 이렇게 말했지요. ‘얼마나 많은 고행자들이 헛되이 숲속에서 죽어갔는가’라고.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일찍이 노자는 사람들이 우물에서 도르래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도(道)가 땅에 떨어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현대 문명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었지만 인간 소외라는 독(毒)을 만들었지요. 욕망을 단절하지 않는 한 자연은 언젠가 인간을 외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지구는 푸르고 아름다운 별이 아니라 검붉은 암세포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결과지요.”

페터 선생은 청년이 되면서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었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후 해군에도 복무하고 제지공장 등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사회와의 타협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후 선생은 동서양의 경전들을 섭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붓다의 삶과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다. 붓다의 가르침은 결국 페터 선생을 집 없는 수행자로 살도록 만들었다.

“내가 거지의 삶을 사는 것은 붓다가 모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고 ‘아나카리카’의 삶을 걸어간 것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붓다의 가르침이 가장 과학적이고 상세하며 미래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감동 속에서 사는 비구라 생각합니다. 붓다의 가

르침보다 완벽하고 심오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붓다의 가르침을 이생에서 완벽하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페터 선생의 식생활은 탁발과 생식이었다. 무공해 식품점 ‘비오라덴’에서 방부제가 섞이지 않은 흑빵과 과일 채소 등을 얻어다가 충분히 씹어서 삼킨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썩은 것도 있었다.

“붓다는 음식을 완전히 씹어서 물이 된 다음에, 다시 입안에서 세 바퀴를 돌린 뒤에야 삼켰습니다.”

나무 밑에서 혹한의 추위를 견디면서도 페터 선생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선생의 깊은 사유와 언어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가 도서관과 가까운 숲속에서 지내는 것을 보면 분명 책을 통한 공부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책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붓다와 카비르, 노자와 장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임스 모파드’가 번역한 신약성서에서는 예수의 삶을 배웠고, 신비주의자였던 ‘요하네스 타울러’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로부터 내 잘못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그것을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경전을 외우고, 매일 성전에 나가기도 한다고 해도 구원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한 사람이 붓다를 뵈고 출가하기를 원했을 때 한 제자가 259개에 달하는 계율을 열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출가자는 계율이 너무 복잡해서 다 기억할 수 없다며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붓다는 말했습니다. 몸과 말과 뜻의 세 가지 행위를 지키라고. 그 말을 들은 출가자는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를 알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禪)을 행하는 선사에게는 턱수염을 깎을 시간조차 없는 것입니다.”

선생의 한국 방문은 전재성 박사의 초대로 인한 것이다. 전 박사는 독일 유학시 7년 동안 페터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고, ‘거지성자’라는 책을 통해 국내에 소개했다. 한국에서 본 승가에 대해 소감을 물어보았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시자의 말대로 실천하는 곳은 없습니다. 수행자는 정신적 육체적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현실은 유럽의 신부의 경우 돈, 명예, 음식 등 풍족하게 지내지요. 겉은 포기했지만 속은 더 많은 것을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마음 속에 내재된 잘못된 주인을 몰아내고 참된 주인을 찾자는 게 승가입니다. 한국의 사찰도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이것은 사치이고 오욕락이 싹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초기 불교 율장과는 동떨어진 현실입니다. 모두 원천적 무소유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억제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에 찬 어조였다. 원칙 없이 방편만을 일삼아온 우리의 현실을 꼬집는 말하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러한 선입견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른다.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대승의 승단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했다라면 아마도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

대승은 중생의 고통과 모순의 현장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수행을 하고자 탄생한 승가가 아니며, 현재에도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과 중생을 위해 계율과 청빈의 행으로써 승가의 풍토를 부처님의 참 뜻에 맞게 구현하고 있다. 우리불교의 모습은 1700여 년 동안 중생들과 어우러져 희노애락을 함께 하던 거대한 마당극임을 몇 시간의 대화 속에서 공유할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네 시간이 금방 흘렀다. 선생과의 좌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할 만한 내용이 많았으며, 동서양의 문화적 배경과 수행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더욱 많은 생각을 주는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과 불편한 언어 때문에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없었지만 부처님을 닮기 원하고, 깨달음을 알고자 노력하는 이는 누구나 우리와 하나이다.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 철저한 무소유로 살아가는 페터 선생을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라 부르고 싶다.

법계의 성품을 보면

응진(應眞) / 대교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위 계송은 자주 인용되는 화엄경의 계송이다.

부처님 법문은 길이의 장단에 관계 없이 그대로 진여실상을 드러낸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一字多字總集法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짧은 계송도 불법의 골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에 이 계송을 제대로만 파악한다면 불법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대들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분명하게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살펴보아라.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자, 그러면 문맥에 따라 그 정확한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하자.

설법의 주체도 대상도 본래 없지만 본래 없는 가운데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들에게 불보살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중생 그대들이다.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부처님은 진리를 깨친 사람을 말할 터이다. 과거 칠불부터 우리의 본사인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미래세의 주인이라는 미륵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일체 제불을 분명히 알고자 함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단일한 명제가 깔려 있으니, 한마디로 “만약 그대가 깨닫고자 한다면”이라는 의미이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연기실상의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이치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었고, 미래세의 미륵 부처님도 바로 그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세속의 온갖 것들을 버리고 삭발하고 먹물옷을 입었는가? 바로 깨닫기 위함이다. 그대가 삼세의 모든 고통을 여의고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 바로 ‘약인육료지 삼세일체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다음 구절은 삶의 실상과 깨침에 이르는 방법을 전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살펴보아라. 일체의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중아함(中阿含) 상적유경(象迹喻經)에서는 부처님께서 ‘만일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연기를 본다’ 라고 하였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만약 연기를 보면 법을 보는 것이고 바르게 법을 보면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듯이 깨달음의 내용은 바로 연기법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부처라는 개인의 특수한 인격체가 아니라 연기하는 법의 세계의 실상을 깨달은 자에게 붙이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왜 법계의 성품을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는가? 일체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

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법계성이라는 말과 일체라는 말의 쓰임새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생멸하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연기하는 법의 세계 즉 법계이다. 그러나 중생은 분별하는 망상의 마음으로 연기실상인 법계를 낱낱이 분해하여 이것과 저 것으로 나누고 갈라 그 속에서 생사 유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에 의해 갈라진 모든 것들이 바로 일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그러나 일체와 법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때 법계는 일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깨달은 자의 세계인 법계와 중생의 망상식에 펼쳐진 일체로서의 생멸계는 거리가 얼마이며 어떻게 생멸의 세계에서 법계로 전환이 가능한가?

망상하는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환같은 꿈같은 중생계이기에 법계와의 거리가 본래 없고 생멸계가 그대로 법계이고 법계가 그대로 생멸계일지라도 관조의 작용이 없으면 영원이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마땅히 법계성을 관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자, 그러면 계송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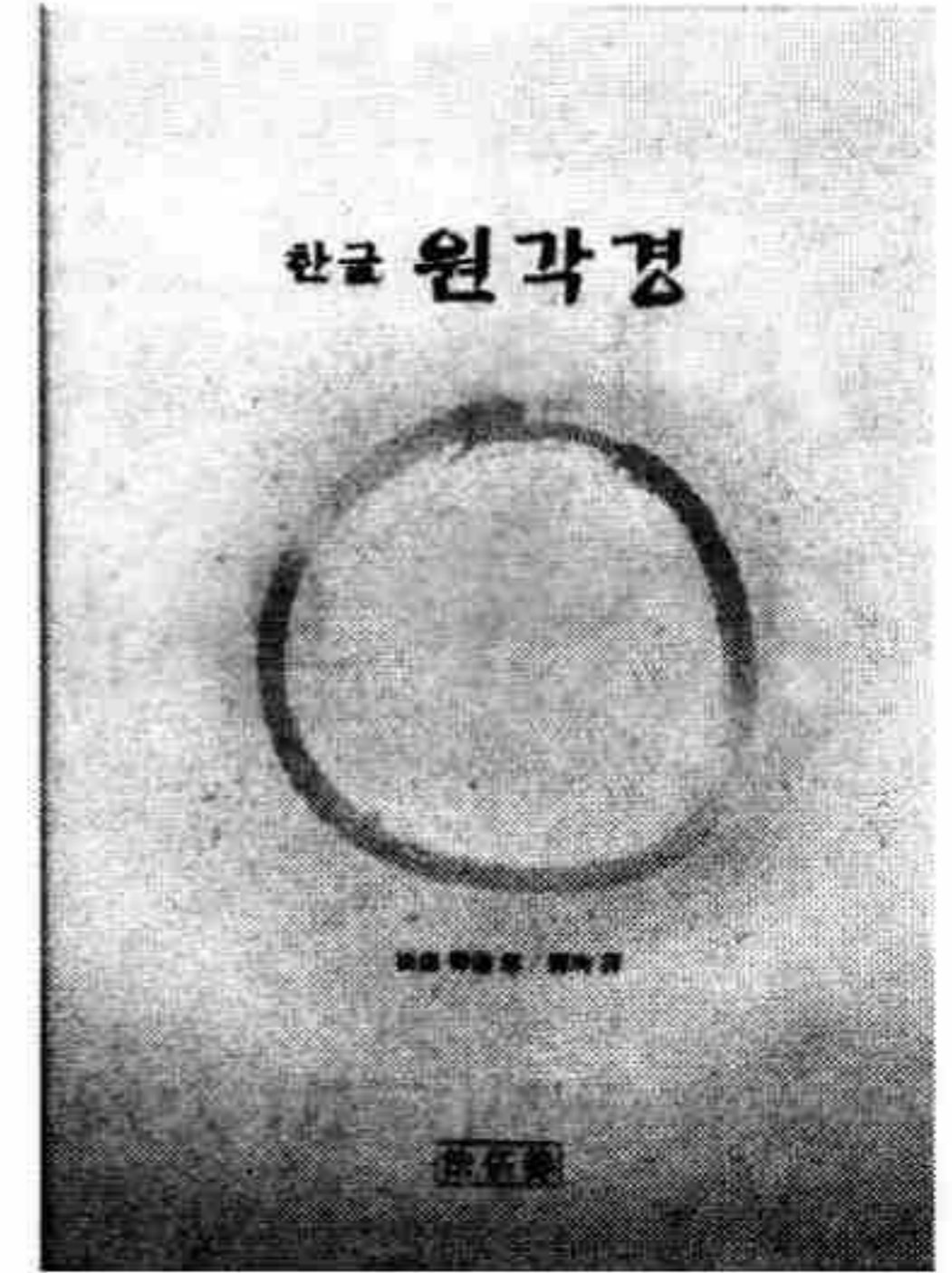
낱낱이 서로 다른 모든 존재들은 오직 분별하는 마음인 망상식(妄想識)에서 만들어졌다. 만약에 분별하는 마음을 쉬고 삶의 그대로의 모습인 법계의 성품을 관한다면 그대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깨달을 것이다.

요체는 분별하는 마음을 무분별의 진여일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으며, 전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광반조하는 마음 즉 관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글 원각경(圓覺經)을 내면서

印月庵 圓珣스님

432쪽 4×6배판 양장본
 도서출판 법공양 권
 함허 득통 解/ 원순 譯



... 원각의 인연이 아름답기를 ...

한문으로 되어 있는 원각경을 한글로 옮긴 곳은 전남 순천시 송광면에 있는 조계산 송광사라는 깨끗하고 조용하며 아름다운 절입니다. 티없이 깨끗한 마음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송광사는 이 마음의 원형을 가꾸는 청정 도량입니다. 티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여 천진하고 청정한 그 마음이 바로 원각(圓覺)이니, 송광사는 원각의 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각의 도량 송광사는 원각경에 등장하는 모든 보살들이 어울려 항상 화엄의 세계로 장엄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화엄세계를 펼치고 있는 송광사의 사부대중들을 원각경의 보살에 비유하여 원각경의 개요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각경 1장에서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文殊) 보살이 등장합니다. 국제선원으로 쓰이는 송광사 문수전은 세계 각국에서 온 문수 보살들이 모여 새벽 2시에 일어나 예불을 마치고, 참다운 지혜로 부처님이 되고자 인지법행(因地法行)의 참선 수행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원각경 2장에서는 보살행으로 유명한 보현(普賢) 보살이 등장합니다. 새벽 3시 첫 입선(入禪)을 마친 선방에서 포행 죽비를 치면 그와 동시에 성스럽고 낭랑한 도량석 소리가 도량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맑은 영혼을 뒤흔들어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분한 감동의 물결이 가슴에서 저 우주 지방세계로 확장되니, 이 소리를 듣는 자 지방세계와 하나가 된 가슴 벅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원각경 3장에서는 환(幻) 같은 세상을 그대로 아는 보안(普眼) 보살이 등장합니다. 대웅전 윗편 수선사(修禪社)는 눈 푸른 정진 남자들이 환(幻) 같은 세상을 지혜로운 눈으로 두루 관(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삼매에 들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대로 부처님 세계이며 무상한 세상의 흐름 일체가 환(幻)인 줄을 아니, 여기서 원각경 보안 보살로 화현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각경 4장에서는 샅된 의심을 타파하여 바른 신심을 돋구어 주는 금강장(金剛藏) 보살이 등장합니다. 대웅전에서 예불을 끝내고 학인들이 낭랑하게 독경하는 금강경 소리는, 어리석음으로 허깨비 같고 물거품 같은 세상살이에 집착하는 중생들의 의심을 타파하고자, 금강보검(金剛寶劍)을 치켜든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우렁찬 함성입니다.

원각경 5장에서는 애욕을 자비로 바꾸어 주는 미륵(彌勒) 보살이 등장합니다. 집착에서 나온 애욕은 중생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별[五性差別]하게 되는데, 참다운 시주 보살과 화주 보살 사이에 오가는 부처님의 법과 공양물은 중생의 욕망이 개입되지 않았기에 청정합니다. 이런 보살이 있는 장소는 세상을 정화하는 좋은 수행처가 됩니다. 송광사에서 세상의 애욕을 끊고 일체중생을 위해 헌신수행하는 이런 분들에게서 원각경 미륵 보살로 화현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각경 6장에서는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어 주는 청정혜(淸淨慧) 보살이 등장합니다. 해청당(海淸堂)은 바다같이 청정한 마음을 쓰는 사람이 모여 산다는 의미로, 지금 대교반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수행이력이 붙은 윗반답게 예불(禮佛), 운력(運力), 간경(看經) 등 기초 수행의 모든 일에서 모범을 보이는 이들에게서 원각경의 청정혜 보살로 화현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각경 7장에서는 중생의 애욕에서 생겨나는 불같은 욕망을 위엄과 덕으로 전환시켜 주는 위덕자재(威德自在) 보살이 등장합니다. 위엄과 덕은 지혜와 자비를 갖출 때 생겨나기에 고요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마타 정관(靜觀), 일체의 무상한 흐름을 정확히 보는 삼마발제 환관(幻觀), 정관(靜觀)과 환관(幻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나 적관(寂觀)의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송광사 삼일암에 주석하시는 방장스님을 뵈오면, 위엄과 덕이 자재한 원각경의 위덕자재 보살로 화현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각경 8장에서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수행하는 이치를 잘 아는 변음 보살이 등장합니다. 정혜사(定慧社)는 강당 학인들이 간경(看經)하며 생활하는, 선정과 지혜를 병행하는 수행장소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관을 인연 따라 근기에 맞추어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곳입니다. 정혜사(定慧社)란 보조 스님께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하여 부패해 쓰러져 가는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강당에서 소리 높여 간경하는 학인들의 독경소리, 우리는 경안(經眼)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원각경 변음 보살로 화현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각경 9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중생의 모든 업장을 정화하는 정제업장(淨諸業障) 보살이 등장합니다. 송광사 도량에는 지장전이나 관음전, 화엄전이나 약사전 등 많은 전각이 있어서, 열심히 참회하며 기도하는 스님네를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님들의 모습에서 원각경 정제업장(淨諸業障) 보살로 화현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각경 10장에서는 보각(普覺) 보살이 등장합니다. 보각 보살이란 자기 수행의 공덕으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입니다. 절에서 아침저녁 원력을 세우는 발원문에서 ‘문아명자면삼도(聞我名字免三途) 견아형자득해탈(見我形者得解脫)’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내 이름을 듣는 자는 삼악도(三惡途)를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자는 해탈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송광사 스님들의 모습이 선지식입니다. 여기에서 원각경 보각 보살로 화현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각경 11장에서는 원각 보살이 등장합니다. 원각(圓覺)이란 자기 수행과 일체중생의 성불이 완성된 자리를 말합니다. 송광사의 도성당(道成堂)은 옛부터 수행이력이 있고 덕행으로 대중을 감화할 수 있는 분이 거쳐하시는 곳입니다. 동사섭(同事攝)의 선원청규를 앞장서 실천하시며 자기 수행의 결과물로서 주변이 감화를 받아 아름다운 질서를 이룰 때, 우리는 여기서 원각의 세계를 볼 수 있으니, 그러므로 도성당 스님들에게서 원각 보살로 화현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각경 12장에서는 현선수 보살이 등장합니다. 현선수 보살이란 현명한 지혜로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이 책을 엮는 과정에서 많은 중생에게 아름다운 인연이 되라고 격려 해주신 여러 스님들을 비롯해서 송광사 원각 도량의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좋은 인연을 배려하셨습니다. 이 분들에게서 현선수 보살로 화현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허 스님은 모든 현상에 두루하고 이치가 원만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갖추고 있는 경이 있다면 그 경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이외에 오직 이 원각경 뿐이라고 합니다.



◆ 송광사내 불일서점에서 판매되는 본 책의 수익금은,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원각경이 화엄경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내용이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골수는 바로 자기의 마음이 원각(圓覺)이며, 이 원각에 세상의 행복한 이치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울타리에서 빛으로 싸여있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시비에 속고 있는 중생의 눈은 모든 것이 고통 그 자체였지만, 열린 마음의 빛 원각의 비춤은 모두가 시절인연으로 화현하신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작고 구차한 일에 매달려 편을 갈라 시비하는 고통보다, 큰 마음으로 수행하여 무상한 세상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 원각경의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여, 모두 다 이 원각의 인연으로 세상이 다툼 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가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삼보에 합장 귀의하옵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시야가 터져 늘푸른 봉우리가 눈앞에 있고
 흘러가는 물 속에 달님이 있어 달밤에 아름다운 풍류가 있다

2000년 첫 날, 텅 빈 인월암에서



조계산 송광사에 들어서면 소슬한 바람 자락마다 대나무 소리가 묻어난다. 송광사를 에둘러가며 울곧게 자라고 있는 대나무들이 그렇게 제소리를 내기에, 그곳이 더 청량하고 울울한 수행의 기상으로 꼭 차있는가. 『찰잔 속에 달이 뜨네』는 범속치 않은 수행도량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문답한 내용을 담았다. 눈빛 푸른 학인스님들의 수행모습이 오롯하게 살아나면서, 차마심과 같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스님들의 관법(觀法)수행과 간화선(看話禪)수행의 응용이 여법하게 녹아나 있다.

수행도량인 講院내에 결성된 「선다일미회」에서의 스님들의 차마심은, 茶道나 茶藝와 같은 일반적인 차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함께 하는 삶’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수행의 한 여정이니, 수행을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첫 걸음으로 다가온다.

“수행은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수행이고 수행이 곧 생활입니다. 걸으며 밥 먹으며 수행아닌 것이 없습니다. 道도 藝도 일상을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참다운 진리입니다. 진리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걸음 한걸음 실천해 나갈 때, 괴롭고 힘든 삶을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수행의 참뜻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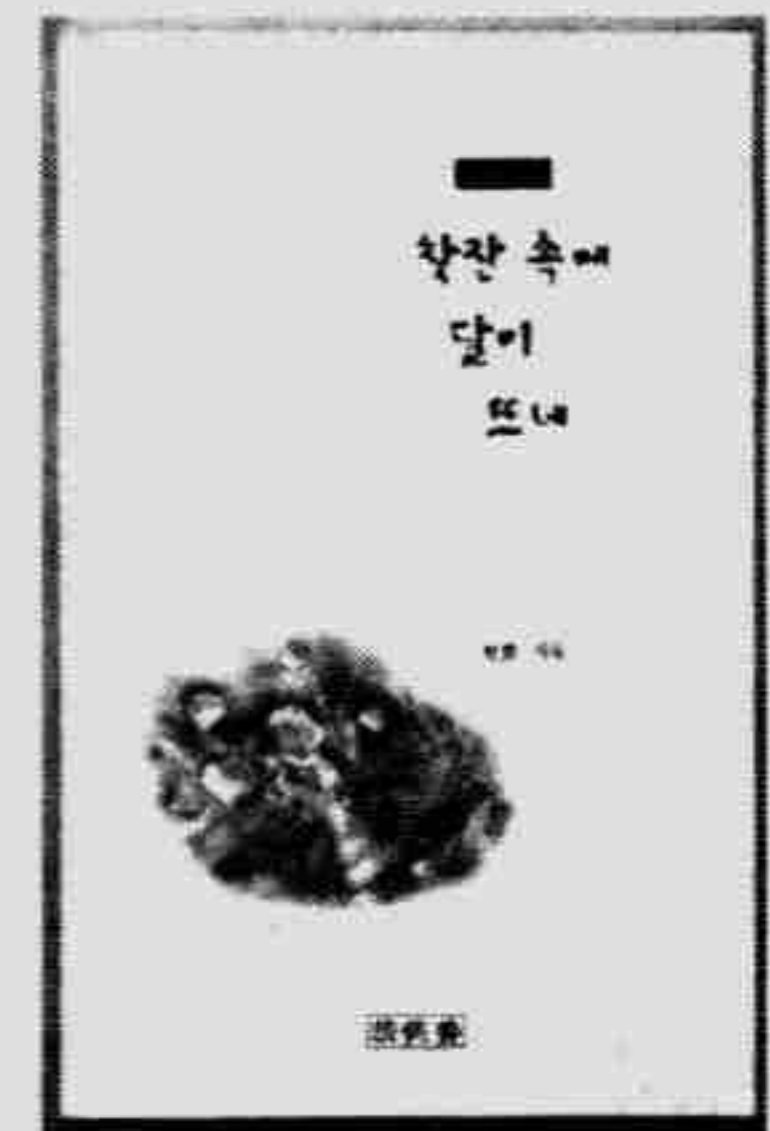
여기에서 강조하는 차수행은 혀와 맛이 만나는 세계를 여실히 알아차림이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맛의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질 때 삶이 온전히 깨어 있게 되리라. 열린 삶으로 서로의 생명을 살찌우는 것을 불가에서는 공양(供養)이라 한다. 한 그루의 차나무와 한 잔의 차, 이것이 있기 위해 이 우주 전체가 서로 소통하고 의지하면서 그물(網)과 같이 얽힌 협동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자비심의 표현이다.

한 잔의 차 마심이 그대로 우주의 몸짓이요, 생명살림의 아름다운 춤이 아닐 수 없다. 차마시는 행위 자체가 항상 수행의 방편이면서 차마시는 그 자리가 수행도량이다.

“멀리서 진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일에 주의하십시오. 주변에서부터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첫맛을 감지하듯 하는 생활이 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활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에서 깨듯이 늘 깨어 있는 삶이 됩니다.”

차 · 수 · 행 · 법

찰잔 속에 달이 뜨네



지운 스님 지음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더위가 심함은 곡식을 익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에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시련의 극복은 주변의 관심과 온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더위와 경제난 속에서 더욱 삶의 고뇌를 느끼시겠지만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인내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힘든 이를 생각하는 자비심이야말로 불자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 사회가 어려울수록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가 계시더라도 신체장애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장 아닌 가장의 위치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강원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뜻있는 분들의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그동안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3490-0043410 ■ 예금주 : 소년소녀(황소연)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 540 - 930) 송광사 강원 능 원 (0661) 755 - 5302

♣ 불교자료 CD 판매

기초교리부터 경륜론 삼장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한 방대한 자료를 작은 CD 한 장에 담았습니다.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 주요내용 : 논문 500여개, 문화, 그림,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레크레이션, 유적답사, 참고자료, 큰스님 법문, 불교관련 도서목록, 대만 불광사전, 아함경 색인프로그램 등.

■ 가격 : 오천원

■ 판매처 : 송광사 내 불일서점(0661-755-5305), 농협 : 615107-51-014821 (예금주 송광사)

♣ 강의(특강) 테이프 보급

우리 송광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의(특강)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으시기 바랍니다.

■ 카세트 TAPE . . . 금강경 오가해 1~4 (85개) 지운 스님 / 120,000원
 범화경 1~2 (33개) 지운 스님 / 50,000원
 인도철학 (18개) 정연 스님 / 30,000원
 차 이야기 (17개) 용운 스님 / 30,000원
 유식 30송 (11개) 정화 스님 / 25,000원

■ 비디오 TAPE . . . 영성의 불교적 이해 (1개) 지운 스님 / 7,000원
 설법하는 법 1~4 (4개) 진옥 스님 / 30,000원

■ 구입처 : 송광사 강원 서기 ☎ (0661)755-5302 ※ 통신으로 신청하셔도 보내드립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0660-0035350(가입자 : 송광사 서기)

본 테이프의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편집후기

현재라는 점들을 모아 정혜사
20호라는 긴 선을 그어 봅니다.
그 위로 솜사탕 하나 가득
장난끼 머금은 고옹스님,
너무 순수한 렌즈를 가졌기에
작위할 수 없는 신범스님,
막내처럼 귀여우면서도 잔일
다하는 살림꾼 도현스님이
청룡열차를 타고 옵니다.
그들의 순수함이 있었기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들의 삶이 계속
아름답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표지 이야기

운력 한때,
가을도 이제 끝자락
그 끝을 잡고 맘의 결실을
수확하는 스님들의
환한 미소가 새롭다.
이제 대지는 한 생명을 다하고
중생들
새생명의 잉태를 꿈꿀진대
윤회의 기쁨, 내일도
이 순간만 같아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박인석, 송두현, 류인석, 이종만, 김정아,
홍은미, 김갑숙, 정순명, 이영숙

장학금 기탁해 주셨습니다.

울주스님, 현고스님, 원주스님, 혜국스님,
황명스님, 현문스님, 쌍봉사, 증심사,
안인준, 이현재, 김종욱, 신중녀, 박정란,
남석련화, 서귀자, 서거호, 김철진, 김현정,
정련화, 순천 후원회, 마산·창원 후원회, 불일회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가 ‘호’를 거듭할수록 여러 불자님들의 호평
과 때로는 질책으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은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맑은 음성을 전하는 데는 여러 불자님들
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해 주시
고 ‘정혜사’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혜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0205429-1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540-930)

송광사 강원내 정혜사 편집실

☎ (0661)755-5302

■ 주소가 바뀌신 분은 편집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의 맑은 물이 흐르다 머무는 송광사 전통강원에서는
보조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戒·定·慧 삼학의 실천 속에서
맑고 아름다운 수행자의 길을 같이 갈 도반 스님을 찾습니다.

신입 및 편입방부 안내

2544년 송광사 전통강원 신입 및 편입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방부받는 반

| | | |
|-----------|----|------|
| 치문반 | 신입 | 00 명 |
| 사집반 | 편입 | 00 명 |
| 사교반 | 편입 | 0 명 |

■ 자 격

- 치문반 : 신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사집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사교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제출서류

| | |
|----------------|-------------|
| 방부원서 | 2부(강원 소정원서) |
|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
| 승적사본 | 1부 |
| 승려증 사본 | 1부 |
| 수료증(편입생)..... | 1부 |
| 사 진(3×4) | 3매 |
| 건강진단서 | 1부 |
| 방부금 | 20만 원 |

-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만의가사(사미), 장삼, 발우
- 전형방법 : 서류, 면접
- 방부기간 : 불기 2544년 2월 20일 ~ 5월 15일
-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 (0661) 755-5302

松廣寺 傳統講院



僧寶殿

佛法僧 三寶랄 제 最貴寶거 어데 멜고
 佛寶는 通度寺라 말로 듯고 알 뿐인데
 法寶는 海印寺라 직접 보아 알앗고요
 僧寶는 松廣寺로 印可받을 데랍네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中)

僧寶殿

승보종찰인 송광사에만 있는 건물로서, 주존불은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좌우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모심. 앞에는 10대 상수제자, 옆쪽에 16아라한, 그리고 뒤쪽에 1250분의 부처님 제자들을 모심. 1988년에 대웅전 중건시 이전 복원한 건물임.